

2. 도고면

가. 도고면 마을 1 (기곡리)

1) 조사일정

1995. 6. 22., 박주영 기록.

숙소인 향산리 노인정을 2시 15분에 출발하여 우리 조(1조)의 첫 조사 지역인 기곡리로 갔다. 3시쯤에 기곡리에 도착했지만 기록 장비의 부실로 인해 조사를 하기엔 앞서서 녹음을 위한 마이크를 구하는 것이 더 급했다. 그러나 기곡리에 있는 한 전과상의 친절한 아저씨가 아무런 신분증도 요구하지 않고 마이크와 녹음기를 우리에게 빌려주셨다.

기곡리는 도고온천으로 유명한 곳이라서 도고면의 다른 마을과 비교해 보면 개발이 많이 된 곳이고, 잘 발달된 휴양지의 면모를 갖추고 있는 곳이다. 외지 사람의 왕래가 잦아 토박이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기가 매우 힘이 들었다. 슈퍼마켓에 들어가서 이 지역 토박이 할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으니 광신약국의 할아버지가 토박이이고 이야기를 잘 하신다고 해서 찾아갔지만 할아버지가 마침 부재중이어서 조금 후에 오기로 하고 그 근처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많이 모인다는 노점상으로 갔다. 거기서 장사를 하고 있는 유갑수 할아버지를 만나서 지금의 절에서 볼 수 있는 오백나신의 기원이라는 <부처가 된 오백 도둑>의 이야기를 들었다. 더 많은 이야기를 듣고자 했으나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다는 할아버지의 말씀을 뒤로 하고 3시 45분쯤에 노점상을 출발해서 기곡리 입구의 할아버지가 많이 모인다는 슈퍼를 찾아갔다. 도보로 약 20분쯤 가서 그 슈퍼 앞에서 김동철 할아버지에게 도고온천이 처음 발견된 것과 어떻게 개발되었나 하는 <도고온천 유래>와 의리 없는 인간을 꾸짖는다는 내용의 <황소 고개 이야기>를 들었다. 학생들이 좋은 일한다면서 음료수를 사주신 한 아저씨를 만나게 되고 그 아저씨의 덕분으로 다른 할아버지를 소개받게 되었다. 김갑술 할아버지에게 <어사가 된 상놈 이야기>와 <어리석은 형과 피 많은 아우>, <바보 이야기>, <송장 이야기>등 많은 이야기를 들었다. 또한 이야기를 아주 잘 한다는 이갑종 아저씨를 소개받았지만 그 아저씨가 발길로 집에 계시지 않았다. 다음에 오기로 하고 전화 번호를 적어서 5시 35분에 그곳에서 조사를 마치고 다시 광신약국으로 출발했다. 6시가 다 되어서 광신약국에 도착을 해서 할아버지를 만났지만 할아버지는 자신은 결코 토박이가 아니고 이야기도 못한다고 하셔서 어쩔 수 없이 되돌아오고 말았다. 숙소로 돌아오니 시간이 6시 30분이 조금 넘고 있었다.

1996. 12. 17. 전정옥 기록.

낮 12시경 송악면 역촌리 보완조사를 마치고 기곡리로 와서 점심식사를 하고 기곡리 노인회관을 찾았다. 도고온천 지대의 화려한 호텔과 음식점이 즐비한 주변환경과는 대조적으로 하천가에 콘테이너 박스 하나로 만들어져 있어 아주 초라해 보였다. 사람이 있을까 하고 들어가 보니 노인 네 명이 식사를 하고 있었다. 김복동씨는 기곡리를 대표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면서 <도둑질하러 가서 부자된 조씨 이야기>, <토정 이지함선생의 죽음>을 구연해 주었는데, 마치 어린 아이에게 동화를 들려주는 것처럼 자세하고도 재미있게 구연해 주었다. 다른 마을에는 구연해 줄 만한 노인들도 없고 노인회관도 제대로 없다는 얘기를 듣고

오후 네 시경 숙소로 돌아왔다.

2) 마을개관

【도고면 마을 1】

336-910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기곡리

1996. 12. 17., 지화숙 조사.

기곡리의 자연부락 이름은 '물탕'이다. 총인구는 337명이고, 총 가구수는 127세대이다. 남녀의 비율은 거의 비슷하나 노인층이 많다. 대부분 논농사와 상업을 직업으로 가지고 있다. 전반적인 생활 수준은 중간 정도이다. 부근에 교육시설은 없고, 도고온천초등학교로 통학을 하고 있다. 행정기관으로는 농협이 있다. 온천 지역이라 호텔이나 여관, 음식점 등이 많아 마을은 매우 변화하여 표면적으로는 매우 도시적인 분위기를 띠고 있다. 변화가를 벗어나면 바로 들관이라 농촌 분위기로 바뀐다. 표면과 이면이 매우 이질적이라는 인상을 버릴 수 없다.

3) 구연자

【기곡리 구연자 1】

도고면 기곡리 3구 원천빌라 301호, 유갑수, 남, 72.

1995. 6. 22., 최윤실 조사

가름한 얼굴에 흰 머리가 많고 얼굴에 반점이 많다. 귀가 크고 몸이 말랐다. 구연시에 손을 자주 들고 중요한 부분은 반복하고 한 사람만을 뚫어지게 쳐다본다. 사투리를 많이 쓰고 목소리에 비음이 많이 섞여 있다. <부처가 된 오백 도둑>을 구연해 주었다.

【기곡리 구연자 2】

도고면 기곡리 2구 147., 김동철(金東喆), 남, 65.

1995. 6. 22., 최윤실 조사

둥근 얼굴에 앞머리가 조금 벗겨졌고 흰 머리가 약간 있었다. 피부가 매우 고왔고 키가 작다. 구연시 목소리가 낮고 점잖았으나 가끔은 목소리도 높아지고 손동작을 많이 한다. 얘기는 어렸을 때 어른들에게 들었다 한다. <도고온천 유래>와 <황소고개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기곡리 구연자 3】

도고면 기곡리 2구 223번지, 김갑술(金甲述), 남, 51.

1995. 6. 22., 최윤실 조사

얼굴이 가름하고 한 쪽 눈이 약간 작다. 손이 유난히 크고 손톱도 까맣고 피부색도 검은 편이었다. 구연시 사투리를 많이 쓰고 이야기를 요약해서 하고 가끔 청중들에 되물어 보기도 했다. 처음에는 이야기를 하기 싫어했으나 조사자가 계속 구연을 유도하자 많은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양반, 상놈을 구분하는 신분의식이 아직 남아있는 것 같았다. 청중들은 어느 때보다 재미있어 했다. 이야기는 주로 이북에서 내려온 사촌 매형에게서 들었다고 한다. <어사가 된 상놈>, <어리석은 형과 피많은 아우>, <바보 이야기>, <송장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기곡리 구연자 4】

도고면 기곡리 134번지, 김복동(金福童), 남, 67.

1996. 12. 17., 김태현 조사

학력은 소학교 졸업이며 농사에 종사하고 있다. 3대조 전부터 이 마을에 살았다고 한다. 네모난 금테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구연 자세는 매우 진지했고 내용을 자세하게 구연해 주었다. <도둑질 하러 갔다 부자된 조씨>, <토정 이지함 선생의 죽음> 등을 구연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기곡리 설화 1】

도고면 기곡리 동네 노점상점, 1995. 6. 22.,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유갑수(남, 72)

부처가 된 오백 도둑.

기곡, 농은 앞

예, 옛 그러니 옛날은 아니야. 옛날보다도 그렇지 옛날이었거나 이 근래였거나 어 이제 절을 인제 절을 위하고 있어. 그래 인제 중이 있잖은 기여. 옛날 인제 중이라고 했잖여. 중이 옛날엔 동냥하러 다녔어.(조사자: 동냥을 하러 다녔다고요?)시주하러 대녔어. 인제 촌으로 내려와 갖고 인제 이렇게 해갖고 동냥을 해갖고 인제 절을 위하고 그랬어. 근디 그 참 중이 아침에 일찌감치 인제 시주하러 내려오는 거. 근디 인제 어 내려오ندي 인제 밭갓으로 인제 길갓으로 인제 바깥에 참 서석을 심어가꼬 서석이 참 이렇게 익어가꼬 이렇게 쏟아지게 됐어.(조사자: 서석이요?) 스석, 스석이라고 좁쌀이라고 있어. 조라고도 혀.(조사자: 아, 좁쌀.) 그 이삭이 자꾸 길게로 늘어져 갖고 걸리적거리게 됐어. 그레 손으로 이리키 저쳐나서, 그렸어. 그러구 다 내려와 보니까 예 손바닥에 스석알이 서너개나 쏟아져 붙어있어. 갈에 인제 서석이 다 익었응께. 공께 그걸 집어내기는 아깝고 그걸 참 먹었어. 이걸 내버리면 안 되겠다해서. 좌우간 서석을 먹었어. 먹고 나서 인제 그날은 참 시주를 해가꼬 인제 저녁에 들어가서 인제 자는디 꿈에 현명하기를¹⁾, 부처님이 현명하기를 예 “너는 남의 숫곡식을 먹는 거는 소뻐에 없으니께 너는 소가 되야겠다.” 이렇게 꼭 현몽을 해여. 어? 남의 숫곡식

먹는 건 소나 남의 거 먹지, 못 먹는다 이거지. 그런 꿈을 참 꾸고 나서 그거이 참 할 수 없이 소가 되야 갖고서니 소가 됐어.(조사자: 아,자고 일어나니까.) 에 그래가꼬 팔려 갔어. 인제 개인한테, 사람한테. 팔려갖고 참 일만 들꾸 해주고 있네. 소라는 건 옛날엔 논도 갈아 줘야 하고 밭도 갈아줘야 하고 어서 마차도 끌어줘야 하고 일을 하게 돼있어.(조사자: 예.) 그래 십년 동안을 구년 십년 동안을 일을 이렇게 해주고 있는디 하룻저녁에는 에 그 소가 가만히 참 인제 꿈을 꾸고 나니께 그날 저녁에 그 주인네가 참 부잔디 주인네가 큰 화를 당하게 생겼어. 화를 당하게 생겼어. 부자니께 인제 도둑놈들이 와서 그 집 그 주인네가 와서 도둑을 해가게 돼있어. 그 소가 그 꿈을 꾸니께 그래 안 되겠어. 어 나는 참 서석을 3알 먹은 죄로다가 이집 와서 10년간을 참 이렇게 참 저걸 해주고 있는디 먹고 살고 있는디 아 이 주인네가 화를 당하게 생겼는디 그걸 그냥 말 수가 없어.그래 이제 소가 하루 저녁엔 오양간에서 음마 음마 소릴 질렀어.(조사자: 예, 그걸 알려주려고.)그게 주인네가 인제 참 나와 보니께 뭐 누가 있어 아무도 없지. 그런게 아 왜 이런가 하구서 되레 들어갔어. 그래 또 인제 또 그렇게 음마 음마 또 소릴 질렀어. 근게 주인네가 이 참 이상하니께 또 나오겨. 나와 보니께 또 아무도 없이 그런게 주인네가 오양간 앞으로 이렇게 슬슬 지나면서 하는 소리가 ‘아, 이상도 하다. 어째서 소리가 나는데 아무 기척이 없다.’고. 소가 그제서 하는 소리가 “아구 내가 불렀다구.”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 “어 나 참 이래 저래 해 갔구서 어 주인네네 집와서 참 십년간을 내가 이렇게 참 은어 먹구 있는디 아무 날짜에 주인네가 참 화를 당하게 됐어. 그걸 내가 그냥 말 수가 없어 알려준다.” 그 말이여. 그게 주인네가 참 이거 기가 맥히거던. 그래서 들으께 “아 그게 뭐 얘기냐?”구. “아 아무날 아무 시에 산적들이 와 갖고서니 당신네 자산을 전부 아주 털어가게 돼있어. 어 그게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내 이런 얘길 한다.”구. 그러니까 “아 그럼 어떻게 해야 그걸 면하겠냐?”말여. “알면 면할 방도도 알거 아니냐?” 그게 “어 그걸 좀 면하려면 아무날 아무날 저녁에 그 마리 술을 쫓 한 술 준비나 해놓고 그 마당이다니 명석을 쭉 깔고 술단지나 한 댓개 여기저기 해놓고 술 한 단지 갖다 놓고 거기다 또 어 신발 500켈리 해다 놓고 담배 인제 쫄련이지만 담배 500봉지 거기다 해다놓고 그러구서 식구들은 전부 어디로 피난해라.” 이랬어. 피난하라구 말이여. 아 그러니 안할 수가 없지. 그래 갖고 미리 술을 잔뜩 해놓고 깔려서 인제 단지다 술을 죽 해다 놓고 신발 500켈리 거기다 죽 삼어다 놓고 인제 사다 놓고 담배 인제 500갑 시방 말로 하면 인제 담배 500갑 갖다 놓고 그러구서 인제 그날 저녁 지달리구 있는 참이여. 피난하구 있어. 아 그날 그 시간 되니께 산적들이 500명이 달려들은 겨. 도적들 그저 옛날에 그 도적들 산적들이 그 집 부자라고 그 집와서 자산 털어가려고 인제 산적들 500명이 인제 그 집을 들어오는겨. 딱 들어와 아무 것도 없어. 근게 보니께 아 전부 마당에 뭐 잔뜩 늘어났는디 이렇게 돌아다녀보니께 아무것도 없구 없어. 근게 보니께 마당에 술단지도 있고 그냥 인제 밥도 참 500상을 해다왔어. 밥도 해놓고 있거든. 아 밤새 시장할 판이 아 이 술이나 먹자고 술을 실컨들 먹었어. 먹구 밥이 있으니께 밥도 한 그릇씩 먹자구 말이여. 그러고 인제 보니께 신발도 떨어진 놈도 있고 야 이거 한 켤리 신자하니께 500명이 꼭 한 켤리씩 꼭 찾아가. 그래 담배도 하나씩 나눠주니께 500명이 전부 하나씩 다 찾아가. 아 이거 참 술 잔뜩 먹어 밥먹어 신발 한 켤리씩 신어 담배 한 갑씩 넣고 그러니 이게 뭐이가 서운한지 인제 돌아다니다가 오양간 옆쪽으로 가보니까 소가 있거던. 탄건 아무것도 없고. 뭐 사람도 없고 소가 있어. “이거 소나 끌구가서 잡아먹자”이랬거든. 실컷 쳐먹구나서 소까지 잡아먹자 그랬어. 그게 소가 하는 소리가 “아 나 잡아 먹는거 좋아. 좋은디 너들은 이 집에와서 배고픈디 술 잔뜩 먹어 담배꺼정 피고 신발 떨어져 신발까지 신고서 거저 거기다 소를 잡아먹자

하느냐.에 나는 남의 집 서석 세 알 먹은 죄로다 이 집에 와서 10년간 그 빚을 갚어주고 있는 나여. 그런데 나까지 잡아먹으려 이러냐?” 아 소가 이러거던. 그께 도둑들도 그제선 뉘우치니께 참 안됐어. “그께 너들은 시방부터 개과천선해 갖고 좋은 사람되라.” 이라구 소가 일러줘. 그래 이 도둑놈은 이 도둑이 그제서부턴은 도둑질을 그만두고 산으로 올라가서 절을 해 갖구서니 개과천선해 가꾸선(조사자:예.) 이 저 부처가 됐어.(조사자:아.)부처가 됐어. 오백난적²⁾이라고. 절이 가면 오백 오백난적 이 500개를 만든 부처가 있어. 그래 도둑들이 절에 가서 부처가 돼서 오백난적을 만들어 냈대여.(조사자:아.) (칭중:박수치면서 “아 잘 했어.”)

【기곡리 설화 2】

도고면 기곡리 동네 슈퍼마켓 앞, 1995. 6. 22.,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김동철(남, 65)

도고온천 유래, 황소고개 이야기.

일본놈들이 와가지구서 개척해서 짓고 처음이는 집이 없었어. 냇가에 황새가 다리 부러져서 와서 그 물에 더러거 부러져서 와서 그 지금 온천물에 담그고 있었다는 겨. 에 그러구서는 낫고 가.(칭중 중에서 그런 소리는 저쪽으로 가서 하라고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 소란스러움.) 그래 그래서 그께 시초의 유래는 그께 시초의 유래여.(조사자:아 황새가 다리.) 거기서 치료를 받고선 낮아가지고 날러갔다는 것이 그께 최초의 유래여. 그건 그전에 얘기가 우리가 들린 것 뿐이여. 들은 얘기여.

요기 바로 고개가 황소 고개여. 황소 고개. 소의 숫놈 황소라는 게 있잖여. 그께 이름이 황소 고개디 왜 황소 고개냐면은 황소를 끌고서는 옛날에는 여기가 다 나무가 우거졌기 때문에 상당히 이 아주 험했다 이 말이여. 근디 소를 끌고 왔는데 범이 나타나서는 황소하고 응황소하고 씹이 붙었어. 황소하고 범하고 씹이 붙었는데 주인이 하도 겁이 나니까 그냥 집으로 도망왔어. 씹하는 도중에. 그러구서는 인제 거기서는 일단 씹이 끝난디 황소가 집에 오더라 이말이여. 자기 집에. 옛날 소라는 것은 소라는 것은 암만 어디 갔다봐도 자기 집을 오기로 돼있어.(조사자: 예.) 그 감각이 예민하거든. 와 가지고서는 주인이 나타나니까 주인을 갔다가선 받아 가지고선 죽이더라. (조사자:아 그 원도 풀고.) 아 원인이 뭐냐. 모든지³⁾ 씹하는 것은 내 짐승이 죽게 되면 주인이 있으야 힘을 얻는데 그 힘을 믿는, 자기는 믿었는데 소는 믿었는데 거기서만 있어도. 근데 인제 주인이 가니까 자기는 억지로 대서라 두 인제 저 범을 이겼는데. 그래서 그런 유래가 황소 고개란 데가 그 유래여. 하하하.

【기곡리 설화 3】

도고면 기곡리 동네 슈퍼마켓 앞, 1995. 6. 22.,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김갑술(남, 51)

어사가 된 상놈, 어리석은 형과 피많은 아우, 바보 이야기, 송장 이야기.

기곡, 놓은 앞, 뒤

옛날에 저 압록강변에서 (조사자:예.) 치를 매고 사는 쌍놈이 있었어.(조사자:뭐라구요?) 치, 키. 이 까부는 치.(조사자:아! 이렇게 이렇게 켜는 키.) 키를 맵그는 저 상놈이 있었는데 그게 어떻키나 가뭇이 들었던지간에 키는 이 버드나무로 만드는 거거든. 버드나무 알아?(조사자:예.) 버드나무가 막 끝아. 끝았다는건 죽었다는 애기지. 결국은 죽어가지고 그래가지구 인제 만드는 재료가 죽어버렸으니 인제 뭐를 맨들 수가 없잖아. 맨들 수가 없으니 에 이왕지사 팔도강산 구경이나하고 죽자. 자 죽어도 죽자고 근데 인제 그 그 치, 키를 매는 사람이 아들이 하나 있었어. 쪼그만 아들이. 개보고 전국 팔도 유람이나 대니고서 죽어도 죽자고 팔도 유람을 인제 떠나자고 해서 떠났어. 이거 대강만 하는겨. 잘 몰려.(조사자:예.) 다 잊어분저서. 그래케서 인제 그전이가 팔도니께 어떻게 되나. 함경도 평안도 강원도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제주도 그렇게 아마 팔도였던 모양이여. 그래 인제 7도는 구경하고 인제 아니 6도를 구경하고 제주도는 못 가구. 경상도 땅에 들어서는데 한여름에떠니 매미가 울어제끼고 덥기나산데 느티나무 말에 앉아서 있느라니께 글방에서 글 읽는 소리가 나거든.(조사자:예.) 글 읽는 글 읽는 소리가 나니께 여린아가 있다가 하는 말이 “아버지, 나도 글 좀 배웠음 좋겠네.” 그러더라. 그께 아버지가 인제 아들보고 하는 소리가 “쌍놈이 무슨 글을 배우냐?”고. 옛날엔 양반만 글을 배웠지 상놈은 못 배웠단 말여. 옛날에는 그래 인제 그러니께 그래도 아버지 그래도 공부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더라. 그 어짜피 인제 고향이 봐도 뭐 그렇고 그러니께 한번 가보자고. 그래서 인제 그 글방에 인제 지금은 학교지만 옛날엔 글방이란 말여, 글방. 글방에 찾아가서 훈장님을 찾아봤어. 그래서 그런 애길 하니께 “그럼 방법은 하나 있는데 우리 집에서 부자가 다 섬머슴을 살아라. 그러머는 어깨너머라도 글을 배울지도 모르니께 살아라.” 그러디야. 그래 갈디도 없고 그러니께 그냥 그 집에서 묵는겨. 글방에서 인제. 그렇게 한 이삼년이 지났는데 이 옛날에 인제 나라에서 이 차출이 나왔어. 이 저 글방이다 무슨 차출을 보내는고 하니 과거시험이 있으니 이 글방에서는 몇 명을 인제 차출해라 해. 그래가지구서 몇 명을 올려보내라 인제 해가지구 차출시켜라 시켜라 시켜 가지구 안되믄... 그 글방에서도 두명이 차출이 됐어. 과거보고 오라구. 인제 그 애길 들으니 아버지 나도 한양으로 과거보러 갔으면 좋겠다고 (조사자: 아 , 아들이요?) 응, 아들이 하니께 인제 어깨너머로 들었는데 그래도 영리했던지간에 그 두 사람보다는 못지지 않여. 그렇게 어깨너머 배웠어도. 그래 상놈이 무슨 과거며 어 택이 택이나 있는 소리여. 그래 도 훈장한테 애길했더니께 훈장이 가만히 보니께 몇 번 치러보니께 그래도 대강 알거 아녀, 속을. 보냈으면 좋기는 좋것는디 어터키 훈장도 별도리가 생각 안 나거든. 얼마만이 궁리 하더니 그럼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다구. 그래 인제 그 도령들이 인제 과거시험 보러가는 도령들 뒷바라지를 저기 해주면서 쫓아가라고 인제 그럼 뭐라고 하나? 그것보고 근게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지 뭘. 그래 심부름꾼이 돼서 떠려서 올라가기로 됐어. 한양을 가자면 세재⁴⁾ 고개를 넘어야만 경상도 사람이 가깝게 가거든. 인제 세재 고개를 넘는데 이 도령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께 개를 데리고 갔다간 지들이 불리하게 생겼거든. 즈들도 알거던, 애가 좀 글이 들었다는 거를. 어떡키든 떠놓고 가야할 틈디 방법이 없단 말여. 그 방법을 인제 잊져 구하는 중인디 마련하는 중인디 얼마만치 세재 고개 밑으로 가는데 목화따는 여인네가 들이 있더라.밭에서. 그래더니 그 도령들이 그걸 보더니 “옳거니 됐다.”하더니 들이 소근소근 하더라. 하더니 개보고 상놈보고 “너 저기 저 목화따는 여인네들 둘 봐지 않냐”고. “뵈다”고. “그럼 이쪽 이쪽이는 저기 여자하고 키스를 하고 오면 널 텔고가고 그렇지 않으면 너 떼놓고 우릴 쫓아올 생각 말으라,”고. 옛날에 뭐 남녀칠세 부동석이라 말여. 옛날에는 근디 뭐

어느 놈이 어따 대고서 입 입을 맞춰. 그거 뭐 죽으라는 얘기지.(웃음) 그렇잖아, 이체가.⁵⁾ 그래서 인제 어떻게. 쫓아가야 갔고 그러니까 그냥 또 양반들 말 안 들으면 중놈들은 뭐 죽이는건 뭐 여따 방망이니 나 안들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내려간겨. 내려갔는디 목화를 따 오며는 고 따오는 앞이서 이랑 앞에 앉았는겨. 그래 한참이 그렇게 한참에는 두세 시간 정도 인제 걸린 모양이지. 그께 그 목화따는 여인네들이 누군가하니 시누이 올케간이여. 근게 올케하고 시누하고 근데 인제 시누가 그리더라,올케보고. 목화동냥을 이께 했다는 기여. 지금이니까 동냥배가 없지 옛날엔 동냥배기가 있었거던,걸인들. 그래 목화를 줬는디도 가지 않고서 또 나오는 고랑앞이 와서 또 고룽기 기다리고 있거던. 이게 암마해도 내막이 있는겨. 말하자면 그러니까 인제 시누가 올케보고 무슨 내막인지 물어보라고 말이여. 그래 물어보니까 저 입맞추고 오렸다고 그 얘길 전하거든. 그러니 그것 입 안 맞춰주면 죽게 생겼거던. 그럴거 아녀?(조사자:예.) 그러니까 인제 입을 이 처녀가 자청해서 입을 맞춰준 겨. 맞춰주면서 표시를 뭘로 표실한고 하니 그전 여자들은 이렇게 빗을 빗을 꼬고 다녔던 모양이여. 그걸 잘라가지고 이게 우리 정표니까 입맞춘 표시니까 당신이 하나 갖고 내가 하나 갖고 있는다고. 그 인제 입맞추는, 그 두 놈들이 봤지. 근게 인제 할 수 없이 인제 데리고 가야잖아. 뭐 그 어트켜. 자기 즈들이 시키는대로 다 했으니까 그렇해서 인제 한양까지 가도록 어떻게 떼어버릴 방법이 안 나와. 여기 떼놓고 가야 할텐데 갈방법이 안 나온단 말이여. 근디 한양을 딱 들어서니까 뒤 울이 참 운동장만큼 넓은데 말여 담이 이리두기 뺑 둘러 쳐놔 거던. 근데 그 안에 감나무가 가려졌던시간에 목화따고 하는 그 감 저 익을 그 가을에 딴 모양이여. 저기가 (조사자:예.) 그 울안에 감나무가 참 감이 주렁주렁 열려져 있던 말여. 뒤 울안에. 그걸 보더니 도령들이 됐다구. 때낼 방법이 있다구. 인제 둘이 또 소근소근 해더니 “너 저기 저 감나무 봐지? 우리가 냉겨서 냉겨⁶⁾ 보내줄테니까 감을 따가 던지라는 기여. 그러니까 인제 그런 거야 뭐 간단하지 뭐. 즈들이 냉겨 준데니까 그래 이렇게 무등서서 인제 인제 넘어갔어. 넘어가서 감을 따서 던지래서 던졌는디 몇 몇 개 먹는 척 하더니 가자고 가 버리는 기여, 도령들은. 근데 담이 어떻게나 높은지 혼자서 못 넘어와. 그렇게 양반들은 그 담이 높았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인제 할 수 없이 거기서 나올 수는 없고 인제 도리없지 뭐. 누가 데려 내보내주고 데려가 주기 전에는 꼼짝 못하게 됐거든. 그 인제 뭐 그 시중 들어가면서 한양까지 갔으니 피로하기도 했겠지. 그러니까 졸리니까 인제 그 허리띠 옛날에는 뭐 이런 혁띠가 없구 뭐 끈이 그런 걸 테지. 거기 나무다 질끈 동여메고서 그냥 잠이 들어버렸어, 감나무 위에서. 잠이 들어버렸는디, 그 집이 누구네 집이고 하니 시험관 그 양반네 그 집이여. 시험관 체점하는 근게 시험 체점하는 그 그 양반네 집이여. 그 집이 이 양반이 낮이 그때 졸려서 자고 일어나니까 자기 울안에서 참 뒤울안에서 아 청룽이 막해서 용천애 올라간단 말이여, 꿈이. 그래 깨보니까 꿈이란 말여. 낮잠을 자다가 인제 깨보니까 그래 하인들을 불러가지고 뒤울 안에 가서 죽은 개미새끼라도 하나 있으면 내 앞에다 대령해라. 근다리지 말고.⁷⁾ 그래 애들이 인제 하인들이 뒤울 안에 가서 죽은 개미만 찾는 겨. 죽은 개미 찾으었다고.(웃음) 근게 죽은 개미가 봐여? 아무 것도 없다고. 그래 다시 찾아보라고. 그래 어떻게하다가 하인 하나가 이 감나무를 보니까 한 놈이 진짜 뭐 자고 있던 말여. 그래 죽은 개미도 뭐 잘 잘 갖고 오렸으니까 잘 참 저 해서 대령을 시켰어. 그께 목욕재계해서 옷 깨끗이 입혀서 내 앞에 대령해라고 아 그렇게 해서 딱 갖다 대령해 놓으니까 한다는 장부일세. 그랬는데 인제 어떻게 시험을 인제 볼 날짜가 돼가지구그 집이 거기 있다가 애도 시험을 봤어. 봤는디 워낙 그래도 아 시험을 보기 전에 그 집이 딱 외동딸이 딱 하나 있었어, 외동딸이. 그 대감네 외동딸이 있었는데 이 글을 대조를 시켜도 이게 말하자면 뭐라할까 실

력겨루기라 할까 말하자면 서로 이르기 글을 이렇게 서로 나눠봐도 이 여자가 독선생을 앉혀서 앉혀놓고 배웠는디도 뭐 비듯비듯 해여. 글 재주가. 그러니께 쌍놈 도령이 그래도 머리가 좋았던 모양이라. 그러니께 그렇해서 인저 과거시험을 봤거던. 봐서 장원급제가 됐어. 장원급제가 됐는디 인제 이 임금이 “네 소원이 뭐했으면 좋겠냐?”고 그러니께, “그 입맞춘 처녀의 고장 고을에 어사또가 됐으면 좋겠다.”고. “그럼 어사또 하라.”고. 그래 인저 어사또가 돼가지구 인제 거길 찾아가는겨, 그 처녀네 집을. 찾아서 그 동넨 찾아가니께 마침 혼사날이 됐단 말여. 어떤 대감네집 대감네 집이 혼사날이 됐는디 누구네냐고 물어보니께 그 처녀의 처녀가 시집간다는겨. 그 처녀가 입맞춘 처녀가 인제 널 모레면 시집간다고 그렇게 잔치를 벌릴려고 이렇게 음식을 맨들고 그러더라. 널 모레면 인제 시집 저 초례 시집가는 날 이거든. 근데 인제 이틀전인가 이렇게 그 마을을 들어간 거여, 그 고을을. 근디 그 집이서 이 저 어린 돌령이 왔다갔다 드나들고 그러더라. 그래 개를 피셨어. 인제 어떻게 피셨냐고 하니 그 잔치집은 그래도 인제 부침개 그 뭐이 사탕같은 거 있을 거 아녀. 근디 이 암행어사는 말하자면 집이서 뭐 이렇게 해 먹는 거 좋은 거 이제 사탕같은 거 못 먹었을 적이 사탕같은 거 주면 얼마나 맛있겠어? 인제 그런 거 개를 쫓어. 주니께 애가 먹어보니까 워낙 맛있거던. 워낙 맛있으니께 우리 누나 좀 주게 더 달라고 그러더라. 그런게 이 암행어사가 글을 써서 거기다 써서 저기 누나 갖다 주라고 그 사탕을 준겨. 그니께 애가 누나 나 어떤 그지가 사탕을 준게 참 맛있다고 누나 먹으라고 그러니께 아이 구찮다고 구찮다고 너나 먹으라고 탁 체니께 이 저 사탕이 쏟아지면서 글씨가 뵈거던. 읽어보니까 그 입맞춘 총각이 전에 저 편지를 보낸 겨. 그래 오늘 저녁에 만나자고 글귀가 그렇게 된 거거던. (구연자가 자기가 왜 이렇게 맥빠지게 앉아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자 청중이 고전을 영구 보존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라고 하자 내키지 않은 듯 얘기를 계속했다.) 그래서 인저 저녁에 만나게 됐지. 만나게 됐는디 이 암행어사가 암행어사가 저기는 암행어산지 모르지 그 여자는.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헬래니께 암행어사라고 이렇게 부르는 거지. 근저 인제 저녁에 만났어. 만났는데 암행어사가 쪽닥쪽닥 뭐라고 그랬어. 그랬 그랬는데 혼인날이 돼가지구 신랑이 말타구서 막 근사하게 하고서 초례청에 들어선 겨. 그래가지구 대사를 지내게 됐는데 인제 신부입장해서 인제 들왔는데 아 갑자기 신부가 개거품을 물면서 뒤로 벌렁 자빠지구 막 허우적거리거던. 개 개거품으로 이렇게 자빠지면 그게 간질끼거던. 그걸 보더니 막 신랑이 막 걸음아 날 살려라고 다 도망가는 기여. 지 하인들 데리구서. 아 간질하는 여자 데려다 어떻게 살어? 근게 다 관두구서 가버린 겨. 잔칫집에서 그 정도 했으니께 저 초상집이나 초상집 돼버렸지. 그래가지구 뭐 양반집이 망하다싶이 망했다구 인제 나리치는 거지. 근디 그래서 아버지가 딸한테는 정이 많은 모양이라. 한밤중이었던지간에 아버지가 그래도 딸래미 뒤지라고 갖다 쳐박아 놔어도 집안 망친 년이라고 갖다 집어쳐 넣어도 그래도 살았나 죽었나 문을 요렇게 창호질 뚫고서 들여다보니까(테이프 뒷면으로 교체) 애비가 춤을 추는겨. 들여다보니 마패가 걸려있고 웬 남자가 있거던. 춤을 추고 있으니께 마나님이 그걸 보더니 이 딸이 그래 이러더니 애비조차 인제 돌았구나. 그라구서 이젠 잡안 망쳤다구 그러니께 이 영감탱이가 마누라보고 손짓으로 막 딸방을 가리키는기여. 한참 그러니께 이 마누라도 가마 있자 그래도 궁금해니께 들여다 봤을 거 아녀. 거기 들여다 보니까 마나님도 또 덩실 추고 남편따라 춤을 추고 있네. 하인들이 보니까 하인들이 인제 집안 망했거든. 내외가 또 다 방만 들여다보며 그러니께 망한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참 암행어사 되어가지구 암행어사 신랑 만나서 나중에 인제 그 고을에 원들 참 저 도령들 글방 도령들 과거시험 시험 보러 갔던 도령들 자기한테 그러케 했어도 그렇기해서 자기가 암행어사 됐다고 일게 고을의 군수를 시켜

가지고 시켜 그 저기 도령들을 팔세를 얹고 그 덕택에 지가 암행어사 됐다고 그 군수를 시켰다는 기여. 근게 원수를 은혜로 저 뭐야 원으로 한 게 아니라 덕을 베푼 거지, 말하자면. 근데 인제 그 인제 요짜 줄거리는 끝났고 또 조짜 줄거리 대감의 외동딸(조사자: 아.) 이거는 이짜이거든 연애쪽이고 예를 들어 인제 연애쪽이고 그것보고 뭐라 해야하나. 그 죽을 때 살려준 거 아니여. 예를 들어 들어서 그 저 도령을 그라구 여자는 입맞추고 그라면 정조를 다 바친 거고 그걸 뭐라고 그 사랑 쪽이라고 봐야하나? 어떻게 되는 기여? 사랑 쪽으로 봐야지 뭐. 그리고 요짜이 인제 두 집안이 인제 여자의 기치로⁹⁾ 두 집안을 살리는 거. 고게 또 인제 요짜인데 또 있지. 그래서 인제 고쪽을 또 얘기할게. 그래 인제 시험을 봤는디 급제를 했던 말여. 급제를 했는디 이 사위야 탐이 나지. 근게 사위를 삼아야 할턴디 이 저기 뭐여 아버지를 데려오라 했어, 아버지. 근게 아버지를 데려와 보니까 상놈이지 뭐여. 상놈이니께 그냥 골방에다가 가둬놓고선 인제 어쨌거나 그 남 머슴애가 탐이 나니까 그래도 혼인을 시켰어. 머슴애 무슨 죄있어. 애비가 상놈이지. 머슴애 이미 양반된 놈의 걸. 근데 결혼을 시켰는디 기존에는 그 대감이니까 대감들 인제 초청했던 모양이여. 초청을 했으니께 예 옛날 대감들이 인제 잘 먹다가 그래 인제 이렇게 인제 잔치가 벌어졌는디 옛날에는 저기 모이면 시조를 아마 읊었던 모양이여. 시조를 읊었는디 그래도 상놈 사돈이래도 어쨌거나 그 자리에 참석을 해야할 거 아녀. 그 오라고 해서 돌아가다가 그 상놈 차진에 차례가 되어서 시조를 읊게 되는데. “버들~”(노래로)했던 말이여. 저 뭐 아는 게 버들뻥이 몰르니까. 그런게 아이고 저런 상놈하고 사돈 맺었다고 암만 옷을 깨끗이 입히고 양반같애야 소용없어. 그래 그 소릴 했더니 초청받았던 사람들이 다 그냥 가버리고서 잔치가 과하게 됐거든. 그러니까 양반이 상놈하고 사돈을 맺으면 똑같은 어쨌거나 집안이 망신당하는 기여. 집안이 그래까지 구 집안이 인제 또 망하게 생겼으니께 애비가 딸보고 “너 때문에 망하게 생겼으니께 돈을 얼마든지 갖고 가라. 돈을 얼마든지 갖고 가서 니 남편 데리고 나가라”고 해서 쫓아보내 버렸어. 쫓아보냈는데 이 색시가 뭐 행고하니 집을 잘 짓고 연못을 저 맨들어놓고 그 주위다가 버드나무를 막 심어놓은 기여. 버드나무를 심어놓고서 그 시아버지를 가르치기 시작했어. 글을 가르치기 시작해가지고 참 참 몇 삼년이 지냈던 모양이여. 그랬는데 그 경치가 그렇게 공을 들이고 해서 그런지 그 연못의 경치가 이루말할 수 없이 좋더라. 좋게 맨들어 놨는디, 그렇게 되니까 이 딸이 친정 아버지한테 연락을 한 거여. 우리집이 이렇게 좋은 연못이 있고 그러니 그 나 시집 시집갈 적에 고때 모였던 대감님들은 모셔다가 잔치를 한번 벌리고 벌리고 싶으니께 좀 우리집으로 그 분들을 초청해달라고 그랬어. 그런데 진짜 다 왔더라. 다 왔는디 거기서 한상 참 딱 벌어지게 해서 잔치를 벌려놓고서 인제 그 또 돌려가며 시조를 읊게 되었는데 거기서도 인제 돌아가면서 시조를 읊게 되었는데 그 쌍반 저 쌍놈 아버지 차례가 됐는디 아 또 버들을 찾는 기여. 그래면서 인제 그때는 인제 도망가지 못했던 모양이지. 워낙 그 분위기가 그렇지들 았았던 모양이여. 그러니까 그 시조를 끝내고 나서 그래도 가르쳤으니께 내가 그때 실수를 한 것은 이렇게 내가 살던 사람이라 늘 버들만 보고 살던 사람이라 여기를 못 잊어 가지구 그때 실수를 했다구. 인제 사팔 사과를 드린다구. 그래까지구 양짜 집이를 인제 그러니까 대감들이 아 그랬겠다구. 그 경치가 어떻게 어떻게 좋았던지간에 그럴 수 있겠다 해서 오해가 풀려가지구 두 집이 도로 양반이 되고 그렇게 해서 그 여자의 기치로 그 딸의 기치로 해서 그렇게 잘 지냈다는 얘가지.

기곡, 농은 뒤

이 아우는 약기가 어떻게 약은지간에 새야를 멜빵이라구 이렇게 등어리다 깊어지는 거 있어, 옛날에 멜빵. 새야를 지고 땡길 땡기게끔 이렇게 약어. 근디 형은 어떻기나 미련맞은지 아랫목이서 밥을 먹으면 윗목에 가서 똥 눌 정도로 아주 게을러 터지기가 한이 없어. 그런데 그런 그러니께 이제 오죽 오죽하것어, 주변머리 갖고 그렇지. 그랬는디도 하도 답답하니께 동생이 잇다가 형님 삼백¹⁰⁾이나 갖구서 장사나 한 번 나가 나가 보라구. 삼백이라는 것이 뭐고 하니 쌀하고 저 명주 명주하고 소금하고가 삼백이거던. 옛날에 아주 그거면 그것만 많으면 부자고 그게 꼭 필요했거던. 명주하고 쌀하고 소금하고. 그런데 억지로(주위의 소란으로 잠시 얘기 중단)내보냈는디 그렇기 인제 해서 쟈껴나가다싶이 해서 인제 깊어지고 인제 어떻기 나간 것이 얼마치 갔더니간에 날이 저물었거던. 날이 저물었는디, 인가를 찾아가야 어떻기 잠을 잘 거 아냐. 그 인제 어떻게 된 녀우게 산속으로 들어갔던지간에 헤메이게 됐어. 헤메게 됐는데 어서 불빛이 반짝반짝 비치더러. 그래 인제 참 있는 힘 없는 힘 해가 찾아가 찾아갔는데, 찾아가니께 이 산발한 여인이 나오더니 “우리집 인제 사람이 죽어서 못둔다.”고 그니까 판 데나 찾아보라니 그 밤중이 어디를 찾아가. 인가도 못 찾으며 어쩔거나 사람살리는 셈치고 나 좀 하룻밤만 재워달라고. 그께 이 여자가 하는 말이 그림 한 가지 청이 있으니께 내 청을 들어줄라냐고.아 그러마고. 그러니께 무슨무슨 청이나 아니,들어준다고 해라. 들어가서 밥이나 먹으라고 그러더라. 그래 인제 밥상을 받아서 밥먹고 나니께 하는 얘기가 하는 얘기가 우리 남편이 죽었는데 남편이 죽기 죽기 전에 유언을 했는데 내가 죽거든 그 산꼭대기에 연못이 있다. 그 연못이다가 매장은 썩은 동아발로 썩은 베 썩은 동아발로 해서 매장을 해가지고 나를 거기다 빠져달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는 거여. 근께 매장을 해서 그걸 해달라고 그러더라. 아 해주마하고 그러니까 밥을 갖다 주더라. 그래 밥먹고났는데 참 어디서 썩은 벼하고 썩은 동아발을 갖다 주더라. 갖다 주더니 그걸 해달라고. 해서 인제 뭐 썩은 동아발로 제대로 매장이 되며 그께 뭐 그냥 뭐 날 송장 맨드는거나 마찬가지로. 그래 그냥 끽끔 깊어지고 거 가서 탁 빠져 노니까 송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때 애들이 그 지고 올라간 그 저 바보형을 떠다 받들어 연못으로 집어넣드라. 송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그러더니 둘이 내려와 버리더라. 근디 연못이 어떻기 깊었는지 거기 들어가기만 하면 죽게끔 되었던 모양이야 아마. 그런데 그래도 살 저기가 됐는지 칠녕쿨이 하나가 저기 이렇게 내려왔더라. 그래 그걸 붙잡고 간신히 올라와서 집을 찾아온 거여, 그 형이. 그래 얘길 들어 동생이 얘길 들어보니까 그렇게 됐거던. 그렇게 돼가지구 고 흥내를 또같이 해고서 동생이 거길 찾아간 거여. 근데 인제 동생이 뭘 갖구 간고하니 단단한 베를 갖고 간거여. 베하고 그께 썩지 않은 거를 그래 가지고 지고 올라가서 거기다 연못에 빠뜨 뭐 바칠 것도 없이 부렸버린 거여. 근께 인제 당한 거지. 인제 그 저기가 당했는디 옛날에는 그래도 이 여자는 못 죽 안 죽었다는 거. 옛날엔 여자가 이렇게 귀했디야. 그래가지구 안 꺾이고서 여자를 데리꼬 내려와서 자기 형하고 결혼시키고 시켰다는 기여. 그런데 그네들이 뭘 했는고 하니 그런 사람만 저기 해가지고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런 연못에다 빠져서 물건을 빼앗은 거여, 말하자면. 그런데 이 창고를 세 군데를 열어보니까 창고마다 가득가득 들어있더라. 이 삼백이.(조사자:아.) 근께 장사 장사치는 그 그 짓해서 다 뺏은 뺏다싶이 한 거여. 말하자면 이렇게 뭐라고 해야하나. 그런 식이지.

옛날에 아들이 바보인디 장가가게 됐어. 장가 가게 됐는데 그 아버지가 장가갈 적에 아들 보고 하는 얘기가 “너 장가가서 니 처가집에서 해주는 음식이 있을거라구. 그러면 그 음식 중에서 제일 맛있는 거 이름 한 가지 알아 갖고 오라.”구. 끽리키 일러 보냈던거던. (조사자:예.) 근데 이 놈이 그 처가집이 가니께 이 팔단지¹¹⁾를 이렇게 해주더라,팔단지 팔단지.

팔단지를 해 해 주더라.그걸 먹으니께 그렇게 맛있더라. 먹고나서 이게 뭐냐 그니 팔단지라 그러더라,팔단지 팔단지 팔단지. 집이 인제 오는 거야 인제 무조건 막. 각시고 뭐고 다 바보 니께 (웃음) 고거 그것 이름만 외가꼬 오는 거여. 오다가 이렇게 또랑을 있어가지구 건너뛰 니께 인제 “으쌔!”하거던. 근데 팔단지가 으쌔로 변해버렸어.고기서부팀 그래 “으쌔으쌔!” 하고서 집에 왔거던. “너 뭐 먹고 왔니?” “으쌔 먹고 왔어요.” “으쌔가 뭐야 이놈아.” 하고 툭 때렸거던. 툭 때리니께 그 아들 머리에 팔단지 모양 내밀었어. 그 동생이 보더니 “아고, 영아!¹²⁾ 팔단지 모양 내밀었다.”고 하니께 “아참! 팔단지 먹고 왔다.” 그러더라.

남편이 갑작스리 죽었거던.(조사자:예.) 갑작스리 죽었는데 자기 언니한테 알려야 할텐디, 이 시체만 놓고서 어떻게 떠날 수가 없단 말이여. 떠날 수가 없는데 마침 어떤 남자가 하룻밤 자자고 왔더라.(조사자:예.) 자자고 와 왔는데 반가워서 밥을 잘 대접해서 내 사정이 이러니 이 시체 좀 지켜달라고 그러니께 밥을 얻어 먹었겠다. 이 남자가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 인께 시체를 참 보게 됐거던. 근디 옛날이라 무슨 이렇기 이렇게 차편이 좋지 않고 걸어갔 다 와야 됐던 모양이여. 새벽녘이나 올거라고 그러더라. 그러디 송장을 지킨다는게 혼자 얼 마나 무섭겼어. 그래 불을 불을 있는 대로 켜놓고서 앉았으니께 아 갑자기 송장이 벌떡 일 어나드라, 꺼끌로 그것도. 근디 송장이 일어난 원인이 고양이가 저 아궁이로 들어가면 송장 이 일어난다는 구먼. 근디 고양이가 아까 아궁이로 들어갔던 모양이여. 그래 송장이 거꾸로 서서 돌아다니더라. 그러면서 이 남자를 막 쫓아다니는 거여.(조사자:아, 무서워.) 쫓아다니 니께 얼마나 무섭겼어. 그래 인제 뭐 그 부엌하고 이렇기 이렇기 아마 들게끔 돼있던 모양 이여. 밤새 이걸 돌은겨, 송장하고 돌이.(웃음) 돌았는데 참 흰하게 날이 밝더라. 밝으니께 그 언니란 사람하고 그 여자하고 돌이 들어오더니 들어오더니 깜짝 놀라더니 시체를 오여발 ¹³⁾ 걸어서 이렇게 걸으니께 자빠지더라. 오여 발 걸으니께. 그 이 시체는 죽어도 이 뭍을 적에도 오여¹⁴⁾로 묶어.(조사자:오여?)이 오여 오여 바로 묶지 않고 오여 묶어. 묶는 것도 그 령고 매장같은 것도 오여 틀어. 다 반대여 산 사람하곤.

【기곡리 설화 4】

도고면 기곡리 노인회관, 1996. 12. 17., 전정옥, 김태현, 배수아, 지화숙 조사.

김복동, 남, 67.

도둑질 하러 갔다 부자된 조씨, 토정 이지함 선생의 죽음.

역촌·외암·기곡 뒤, 기곡 앞

저 밑에 뭐냐 저기 조씨라는 양반이,(조사자:있었다구요?) 예,살았었는데, (조사자:예.) 살기 를 어느 정도냐, 옛날 벼베기나 하고 이렇게 살았던 양반이야. (조사자:벼베기가 뭐예요?) 벼베기라고 있는데, 농사를 막해도 먹고 살만치 지었다하는 하는 얘기여. 응. 벼베기나 하고 살 수 있는, 그렇게 살았는데 그 제 친구가 건달이라. 옛날에는 이런 무슨 뭐 술집 뭐이가 없고, 장터에 나가서 술 인자 술집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술집에 가서 그 친구는 아무 마 재산도 없는 사람이 노다지 술집에 가서 잘 먹고 산다, 이런 얘기여. 아 그래 그날 하루 선 달 그림께나 됐는지, 그 조씨라는 분이 시장엘 간 겨, 옛날 시장에. 가서는 인제 그 친구가 술먹고 앉았거든, 그 주막거리를 들여다 보니께. 그래 그래서 (말을 더듬음) “나 임마 술 먹 는다. 나도 너 한잔 먹어라.”라고 해서 한 잔을 먹고 가만히 그 추운 절기에 생각하니께, 아

나보담도 못한 놈이 노다지 술 먹고 앉았는데, 나는 이게 뭐냐 이런 애기지. 그래서 다시 자기 생각을 기본 생각을 돌렸다 하는 애기여. 이게 무슨 애긴고 하니 에이 나도 한 잔 어디 가서 한 잔 떼떼하게 먹어보자, 그런 애깁니다. 그에 그 그날로부터 날마더 마 주막거리 가서 술 먹는겨. 술 먹는겨. 그 친구들이 너 술 먹느냐고 와서 마 이것이 사발에 풍장에 마 옛날부터 사발에 풍장에 걸린다는 껍니다. 사발에 풍장에 걸었다. 걸어가지구선 (조사자: 뭐야? 그게 뭘 말이에요? 사발에 풍장이 뭐예요?) 사발에 풍장이 아주 절단나는 겨. 옛날 사발에 아주 그(청중의 개입으로 주위가 소란함) 그 인자 술로 그렇걸랑. 못 친구덜이 덤벼들어서 그 아주 지독하던 놈이 술을 먹으니께 쫓아들 와서 안 먹을 것도 먹고 그라구 해서 십년이 지나 뭐 십오 년 지나니께 재산을 전부 완전히 탕진을 한 겨. 그 어느 한 해가 돌아왔는디 선달 그믐날이 됐는데 다 털어먹고 마누라가 머리를 깎아서 옛날에는 아녀자들이 시장에 안 나간 껍니다. 안 나가고 남자들이래야 시장에 나가는 줄만 알았던 세상이 있었어요. 다 마누라가 머리를 삭발 이렇게 잘라서 주면서 이거래도 팔아서 내일 초하룻날 마 제사래도 올려야할게 아니야. 밥알이라도 올려놔야 할 것 아니야. 조상한테. 아 이걸 가지고 나가서 팔아가지구 돌아서서 보니께, 그 주막거리 푸짐해, 무럭무럭 나는 그참 이것이 쳐다보는겨. 쫓아갔어. 그래서 한 잔을 막 이렇게 마시고 있노라니께 어느 친구놈이 “너 술 먹었니?” 이라며¹⁵⁾ 들어왔어. 들어와서 그이 술을 마시다 보니께 친구가 들어왔으니 어찌 안 줍니까? “너 한잔 먹어라.” 둘이 먹다보니 자기 마누라 머리 판 거 다 날라갔어. 그러니 집에 오면은 인제 클랐는데, 그렇다고 집에 안 올 수 없고, 집엘 와서 보니 아 빈털털이로 바리¹⁶⁾ 마누라 터리¹⁷⁾ 팔아서꺼정 술을 먹으니 척 집에 들어와보니 마누라가 좋은 소리 하겠어? 근데 다 (발음 불명) 갖인 소리 다 해가면서 굶으니께 큰일 났거든. 막상 마누라 머리 팔른 터리꺼정 팔아서 술을 먹으러갔으니 어찌란 애기여. 그래서 생각다 생각다 초저녁에 드러누워서 영 생각을 하니께 생각이 안 나. 생각한 끝에 어느 한 먼 데로 가머은 큰 부잣집이 있는데 이 집에 가서 도적질을 해야겠어. 그렇게 해야 이튿날 제사를 지내겠어. 망 망통이¹⁸⁾ 를 열매고서 밤중에 가는 겨. 가서 보니께 그 집을 다달아서 가서 보니 아 제사 준비하느라고, 마 그저 옛날에 겨 하인덜 뭐 등등해서 해서 제사 준비하느라고 왓자직걸 마 자야 훔쳐가겠는디, 자야 말이지. 거 집간의 귀통이에서 이렇게 감춰가지고선 기다려가지고 한 세시나 됐던지 인저 다 조용할 때 마 월담을 해서 넘어가서 들어간 겨. 들어가서 광 그 광문을 열어보니 참 부잣집인지라. 술 이렇게 떠서 이렇게 놔뒀. 한쪽에 쌀이 이렇게 쌓여있어. 그래서 쌀을 퍼서 행장에 담아서 놓고 질방을 맨들어서 이렇게 놓구서 술독아지를 보니 그냥 올 수가 없어. 한 잔은 먹어야 겠어. 바가지로 퍼서 술 한 잔을 술을 바가지로 실컷 먹었어. 실컷 먹고선도 그 인저 술김에도 이 쌀을 가지고 가야 집에 가야 내일 아침에 조상에 밥 한 그릇이라도 해놓는다는 정신으로 굶어지다가 술이 취해가지고 그냥 뒤로 벌렁 자빠졌어. 그냥 그 광바닥에 그냥 쓰러졌어. 그냥 모르는 겨. 그러자 몇 시간 후에 날이 밝으니께 하인들이 나와서 뭘 찾느라고 광문을 여니께 웬 놈이 쌀자루를 굶어지고 자빠져서 잔다 이런 애기여. 아 그때 인자 부잣집 마 그 마 저기 보구선 그 “영감님 웬 놈이 도둑놈이 쌀자루를 굶어지고 잡니다.” 말이여. 그러이께 그 영감이 하는 얘기가 “야, 그러냐? 동네 사람 알지 못하게 조용해. 기왕 도적을 마 우리가 도둑맞은 거 아니지 않느냐.(발음 불명) 조용히 해라. 그러고선 살았나 죽었나 확인해라.” 그게 확인한 연유에 죽덜 앓았드랴. 그래서 “깨와서 내 방에 들여보내.” 깨와서 들어와서 죄인이니께 무릎 꿇고 앉아서 영 영감이 사뭇 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온 사연을 묻는 겨. “넌 우째 하필 선달 그믐날 도둑질을 하고 정월 초하룻날 거기서 자빠져 자느냐?” 말이여. “우째 그러냐?” 이러니께 “그 제발 그 과거에 벅베

기나 하는 이십여 년 전이니께 했는데 사발의 풍장에 넘어가 가지고 오늘날 이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허는 얘기를 하고 마누라 다리¹⁹⁾*를 잘라준 걸 가지고 가서 술먹고 오늘 이 지경에 이르렀단 말이여. 이런 얘기를 한 겨. “성이 뭐여?” 성이 뭐냐, 어디 살고 성이 뭐냐 물었던 말이여. 예 아무데 사는 조 아무개입니다. 어 관향은 뭐여? 양지면 양지, 마 한양이면 한양이라구선 댔다는 겨. 그러니께 “어 그러? 아들은 몇이여?” “예, 삼형제 이겼습니다.” 그러니께 둘째 아들이 (테이프 교체) 정이 더군다나 아들 아케 더구나 그 부자집에서 아들 하나 입호시킬 없느냐고 하는 이게 안 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여. 그렇커더니 글세 인제 그 말이 끝나면서 자기가 입던 옷이라도 깨끗하게 빨아진 것을 갖다가 “이게 가지고 집에 가 봐.” 그러니 참 세상이 이만 저 비렁거지가 되었던 사람이 그 부자집의 좋은 옷을 입고 집으로 와 보니께 쌀이 속 섬이 집이 와 들어와 있더라 이거여. 응 쌀 푸대가 돌아와 있어. 그 마누라 보고 물어 보는 기여. 이건 자기는 영문을 그 지경만 당했지. 이 쌀이 왜 왔는 거를 모른다 이런 얘기여. 인제 마누라보고 물으니께 그래와서 웬 어떤 문들이 막 이렇게 와서 저다가 놓고 갔다 예기여. 그래 그집에서 그 영감이 보낸 겨, 그 쌀 석 섬을. 그렇카고 둘째 아들을 그집 같은 이 조씨 같은 이 관행이 같어 가지고 둘째 아들을 그 집으로 입호시켜 줘서, 도적질하러 가서 잘된 사람은 역사적으로 우리 한국에서 이거 함자도 알았는데 잃어 버렸고 조씨라고 하는데 조씨라고 하는데 그 분이 도덕질 하러 가서 부자된 사람은 그 사람밖에 없다는 거여. 아주 오리 한국에서는 그렇하고 한 가지 더 얘기 좀 해도 돼요? (조사자:예.) 어, (청중:설왕설래하면서 간단하게 하라고 한다.) 어 간단하게 해여.

기곡 앞

여기 여기는 옛날에 신창골이고 저 우리 아산군 이 사회가 신창골, 온양골, 아산골, 이렇게 옛날이 그 이조시절에 그랬습니다. 그래야 옛날기가 되지 뭐 근대사 얘기가 아니고, 오늘 신창골이 참 저저 아산골의 토정 선생님이 그 고을 수령으로 오셨어, 토정 선생이. (조사자: 이지함선생요?) 이지함 선생님이 이 아산 토나 수령 말하자면, 고을 수령으로 부임해서 오셨는데, 양반이 이인이여. 지금도 토정비결이 있지 않습니까? 이 그렇게 유명한 이인이여. 아 아산골 수령을 떡 와 가지고선 그 수령 저 수령이란다. 이 이제 아 옛날 뭐라고 하냐. 이 아이고 아이고 이 저 옛날 고을 저 관청에서 어떤 내려다 보니께 큰 버드나무가 쓌는데 보니께 저게 사람을 붙일 버드나무여. 사람을 죽일 버드나무여. 그 누가 그 나무가 누가 죽을 진 몰러. 사람이 그 버드나무가 사람을 헤친다는 것만 알았지 누가 죽는다는 건 몰러 몰랐어. 이 양반이 암만 이인이라든. 아 얼마 후 저 아전 들을 인제 고 사양간으로다 마 사냥을 가지. 사냥이라도 가자. 그래서 이제 놀이차 겸해서 사양산에 올라가는 겨. 올라가서 토끼사냥을 하면서 가다가 그 아전보고 “저기 저 바위좀 일으켜 바라.” 아 일으켜 보니께 아금이 이만한 금이 천금이 한단지 늘었거든. 아전이 그걸 일으키고선 그걸 들여다 보니께 눈이 번쩍 떠는겨. 야 덩어. 상전의 명령이니께 방법없어 덩어 놓고 또한 곳에 돌아다니다가. 야 이것좀 떠 들어보라도 하니께 하얀 백금 백금이 한 단지 늘었거든. 덩어. 또 덩어. 또한 곳을 다다르니 또 늘어서 보니께 돈이 한 단지 늘었어. 음 그래서 아 그렇커고 그날을 하루를 사냥들 해서 하루를 말이야 산에서 놀다 내려왔는데, 그 떠들어 본 옛날 그때 시절에 아전이 토정을 죽이야 저놈의 저 금단지를 파 오겠는데, 토정을 죽일 터. 그렇다고 해서 칼 들고 들어가서 직일 수도 없고, 토정 죽일 방법을 막 생각하는 겨, 아전이. 옛날 아전이라고 하머는 지금으로 말하면 에 경찰 이 법을 관장하는 아전, 옛날에 그 아전은 이방 이방은 행정을 다루는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으로 다루는 게고 아전은 법을 다루는 게고, 이런 이방 고게 차이가 있어요. 아니 거 단지를 그 황금 단지를 떠들어 본 아전이 저놈의 토정을

죽어야겠는데 죽일 만한 연구를 하다보니깐 한 가지 밖에 없어, 한가지. 한 가지가 무슨 한 가지고 하니 그 토정 선생이 위장병이 있어가지고 지네 생즙을 해 자셨어, 지네 생즙을. 음 지금은 좋은 약이 많지만 그 시절에는 약이 뭐 별스런 약이 있어요? 그래서 지네 생즙을 해 자시면 이렇게 매일 고 시간되면 매일 이렇게 해서 자시는데 지네 생즙을 한 모금 이렇게 먹으면서 그 또 한 번 이렇게 먹으면서 떼고 바로 밤(청중:생즙을 먹어야 돼.) 밤을 먹어야 그 지네 생즙이 제독이 되는데 아전이 그걸 생각한 거. 그래서 그 아래 그에 원청 그 아래 있는 버드나무를 가서 위 부분을 잘라다가 밤새도록 밤 매일같이 생즙을 치는 거, 생즙을. 그래서 놓고서 지네 생즙만 들어가기만 기다리는 거. 그래 지네 생즙 들어가면서 버드나무를 버드나무 뭐냐하면은 밤 같은 걸. 그 놈을 다리는 기여. 아 이놈을 아무리 깨물으니 깨 물어져야 먹지. 밤이 아닌 버드나무니. 그 토정 선생님이 밤을 가지고 오라고 밤밤 하다가 아 아전이 안 갖다 주니 어떻게 되냐 말이여. 그러니깐 “밤밤밤밤.”하다가 돌아갔다는 거. (조사자:아 그래서 돌아가셨어요?) 예. 그래서 돌아왔습니다. (조사자:그 아전이 뭐요?) 아전이 그 금단지 떠 들은 길을 올라갔는 거, (조사자:아~.) 금을 찾으려. 막 보화를 찾으려 그런데 없어 떠 들어 보던 자리를 암만 봐도 없어. 그래가지고 상전을 죽였고. 그래서 그 시대 당시에 우리만에 조정에서 과거를 마 매년 이렇게 과거를 과거 지금식으로 무슨 고등고기 마 이런 식으로 과거를 보는데 아산공에서마 왔다고 과거보러 왔다면 천하에 마 재력을 갖고 재주가 있어도 안 쓰겠다는 거여(조사자:왜요?) 그런데서는 천재가 왔더라도 안 써 준다. 그래서 아무리 등용을 아무리 천번을 천재래도 등용을 안 시켰다는 거. 그것이 역사에 기록이 있습니다.

나. 도고면 마을 2 (농은리)

1) 조사일정

1995. 6. 23., 박주영 기록.

아침 식사 후 숙소인 향산리 노인정을 9시 20분 정도에 출발해서 조사 지역인 농은리, 화천리, 도산 1리, 2리 중에서 도고면의 가장 외곽 지역인 농은리로 향했다. 9시 40분쯤 화천리 입구에서 내려서 걸어가서 10시 15분 경에 농은리에 도착했다. 우선 농은리 노인 회장을 만났더니 지난번 사전 답사 때 본 기억이 나던지 반갑게 맞이해 주는 한편 마을이 공사중이고 또 있다가 선거 유세 들으러 마을 노인들이 모두 갈거라서 조사에 어려운 점이 많을 거라고 걱정을 해 주었다. 우리들은 먼저 아무도 없는 노인 회관에서 사람들을 불러 주겠다고 나간 노인 회장님과 다른 구연자들을 기다렸다. 10시 45분 경에 정순용씨가 와서 <노적봉 고이바위>, <쥐바위> 이야기를 해 주었다. 그리고 지명에 얽힌 <밤 모퉁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 그러던 중 김종호씨가 무서운 이야기가 있다면서 이 지역에 전해 오는 호랑이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여기엔 자신의 작은할아버지가 직접 겪은 실화도 있다고 한다. 김종호씨가 들려준 이야기는 <호랑이 이야기>, <노름꾼과 호랑이>이다. 김종호씨 이야기가 마치기가 무섭게 다시 정순용씨가 <너븐들>이라는 이 농은리 지역의 모양에 얽힌 얘기를 해주었다. 다시 김종호씨가 <도깨비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에 뒤질세라 정순용씨가 <박문수 이야기-해가 언제 가장 클까>, <박문수 대답하기>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러던 중 선거

유세차가 와서 모든 사람들을 다 실어 갔다. 정순용씨가 가면서 이수봉씨와 이태영씨를 소개해 주었다.

12시 10분쯤에 농은리 노인정을 출발해서 잔골이라는 깊은 산골에 산다는 이수봉씨와 이태영씨를 찾아 나섰다. 길을 가던 아저씨에게 자세한 위치를 묻고 30여분을 걸어서 이수봉씨를 찾아 나섰다. 그러나 이야기를 잘 한다는 이수봉씨가 이미 과음을 하여 횡설수설했다. 더 이상 이야기가 될 수 없어서 우리는 포기를 하고 이태영씨를 찾아 12시 40분쯤에 그 집을 나섰다. 다시 20분쯤 뒹여진 산길을 걸어서 이태영씨 집에 도착하였다. 우리는 거기서 그의 부인인 고영수씨로부터 <효자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그러자 자료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 이태영씨가 부인의 이야기를 부인하고 다시 자기가 보충해 주겠다고 하면서 거기에 빠진 이야기를 덧붙여 <동자삼 이야기>를 해주었다. 그리고 거기에 연달아 <이정승의 하녀와 산삼>, <공주 마곡사의 목대사>를 해주었다. 이야기를 다 듣고 2시에 거기서 내려왔다. 이태영씨 집에서 내려온 우리는 다음 조사지인 화천리로 향했다. 모두가 지치고 점심을 먹을 곳도 없어서 해매던 중 가게에 들어가 대충 허기를 채우고 화천리 노인정으로 갔다. 구연해 주기로 사전조사 때 약속한 노천용씨를 만나서 <호랑이 잡는 이야기>1,2,3을 들었다. 그 중 3번째 이야기는 <호랑이 담배 피는 시절>이란 어휘의 유래라고 하셨다. 또 노천용씨는 <효자 이야기>, <강절소 선생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고, <송상침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는데 여기서 송상침은 세종의 첩으로 그녀가 임금으로부터 총애 받을 것에 대해 미리 암시하는 내용의 이야기이다. 또한 <오성대감 이야기>를 해주었다. 같은 장소에서 시전리의 이덕성씨에게 이야기를 해 달라고 간청을 했지만 우리가 의도하는 것과는 달리 일제시대에 경험했던 이야기만 하고 말았다. 거기서 5시 10분쯤에 출발해서 도산리로 향했으나 이미 다른 조가 그 지역 조사를 하고 갔다는 동네 아저씨의 말을 듣고 다시 기곡리로 발길을 돌렸다. 6시 10분에 기곡리에서 도착한 우리는 빌린 카세트와 마이크를 돌려주고 면사무소로 가려고 했지만 시간이 이미 늦어서 전화로 필요한 것을 물었다. 그리고 숙소에 도착하니 7시가 가까웠다.

1996. 12. 17. 이호정 기록

화천리 조사를 마치고 농은리에 도착한 것이 오후 3시 30분이었다. 작년에 만났던 정순용씨를 찾는 데에 1시간 정도 걸렸다. 비가 오는 데다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겨우 찾았는데 1차 조사 때 이미 조사한 자료 <하주아랑·열명이·자은동의 유래>를 구연해 주어 녹음했으나 자료가치가 없어서 애석한 마음으로 보완조사 2일째 조사를 마쳤다.

2) 마을개관

【도고면 마을 2】

336-910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농은리

1996. 12. 17., 김세연 조사

농은리는 하좌랑, 잔골, 논골, 열명이라는 고을마다 각각의 자연부락 명칭을 가지고 있다. 약 55세대에 총인구는 150~160명 정도이고 여자가 남자보다 조금 많다. 작은 개울이 흐르고 있는 이 마을에는 비닐 하우스가 많다. 주로 농사를 짓고 살며 교육시설이 전혀 없는 열악한 교육환경을 가지고 있다. 세시풍속으로는 음력 정월 보름날 논골에서 지내는 노신제가 있다.

3) 구연자

【농은리 구연자 1】

도고면 농은리 219, 정순용(丁順蘊), 남, 62.

1995. 6. 23. 최윤실 조사.

농은리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농사를 짓고 살고 있으며 구연한 이야기의 출처는 기억하지 못했다. 얼굴은 둥글고 까만 편이었고 팔의 근육이 잘 발달하였고, 이가 곧고 귀가 크다. 구연시 마이크를 많이 의식하면서 녹음할 필요가 없다고 했다. <노적봉 고이바위>, <쥐바위>, <밤모퉁이 유래>에 대하여 구연해 주었다.

【농은리 구연자 2】

도고면 농은리 329번지, 김종호(金鐘鎬), 남, 67.

1995. 6. 23. 최윤실 조사.

약간 각이 진 얼굴에 흰 중절모를 쓰고 있었다. 손의 마디가 굉장히 굵고 인중이 길었다. 가슴에는 사마귀가 있었다. 구연시 중간중간에 “하 근디”란 말을 하고 손을 자주 들었다. 내렸다 하는데 너무 잘 웃어 조사자들도 따라 웃는 경우가 많았다. 이야기는 주로 어렸을 때 할머니에게 들은 실화라고 했다. <호랑이 이야기>, <호랑이와 노름꾼>을 구연해 주었다.

【농은리 구연자 3】

도고면 농은리 잔골, 이태영, 남, 77.

1995. 6. 23. 김세연 조사.

이곳에서 77년째 농사를 짓으며 부부가 같이 살고 있다. 귀가 굉장히 크고 머리에 검은 반점이 있다. 턱수염을 약간 기르고 얼굴과 목에 잔주름이 많은 편이다. 이야기 도중에 언뜻 언뜻 나타나는 이태영씨의 의식은 요즘 사회에 대해 굉장히 비판적이고,孝의 관념이 뚜렷이 자리잡고 있었다. 우리들에게 부모님께 잘하라는 훈계를 많이 했고 항상 사람은 공덕을 베풀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동자삼 이야기>, <이정승의 하녀와 산삼>, <공주 마곡사의 묵대사> 등을 구연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농은리 설화 1】

도고면 농은리 노인회관, 1995. 6. 23.,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정순용(남, 62)

노적봉 고이바위, 쥐바위, 밤모탕이 유래

기곡, 농은 뒤

저 바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이 고이바위라고.(조사자:고이요?) 고양이가 바위.(조사자:아 고이.) 그런데 그 바위가 인제 이 산을 이 산은 노적봉이라고 (조사자:노적봉요?) 저건 고무레봉이고.(조사자:고무레요?) 이제 그 고무레 노적봉에서 고무레로다 인제 이렇게 잡아당길라고 하니까 이게 인자 잡아당길라고 해서 인제 하는건데 여기에는 또 쥐바위가 있어. 쥐가 노적봉으로 갈라고 하는 걸 인제 고양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못가. 그래선 이 노적봉에 고무레가 있어서 이렇게 잡아당기는 형상이다 그 그런 얘기를 한마디 들은 적이 있지. 밤모탕이, 그게 워쨌 밤모통이라고 됐나면(이런는 얘기 필요없다면서 그만 두려다 조사자의 권유로 계속) 거기서 바위가 산에 바위가 이렇게 밤마냥 둥글둥글한 바위가 있는데 그 밤 한 되를 갖다가 쏟아놓은 것이 둥글어 마냥 드문드문 이렇게 밤이 이렇게 내려온 게 있어.(조사자:예.) 그러니까 거기를 밤모탕이라 한 것이 그렇게 내려와 있기 때미 그렇다 하는걸 또 누가 얘기했더라고.

【농은리 설화 2】

도고면 농은리 노인회관, 1995. 6. 23.,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김중호(남, 67)

호랑이 이야기, 호랑이와 노름꾼

우리 에 증조부께서 에 여기서 예산장이라고 있거든. 장에 갔다가 약주를 잡수시고 캄캄한 데 비는 구질구질 오는데 요 에 혼자서 인제 오시는데 여 도봉골 고개가 있거던.(조사자:도봉고개요?) 도봉골 고개. 거기 가끔 호랑이가 나타났대. 근데 마침 그날 할아버지가 인자 약주를 탁 잡수시고 비척비척 오시는데 캄캄한 야밤인데 앞서서 뭐가 탁 채더라. 그 인제 뭐 지금 같으면 후라시라도 있고 라이터도 켜 보는데 캄캄하니까 인자 더듬었다 이거야. 바닥에 뭐가 얼큰하고 집히더라. 어 보니까 킁킁해 보니 직감적으로 보니까 이게 개 같더라. 아 이거 됐다고 인제 그 놈을 질질 끌고 왔디야. 어셨디야. 어서 갖고 인제 어른 양반이 이제 장에 가신계 인제 집에 오시니까 인제 아 그런데 이 놈이 줄랑줄랑 인제 아녀 마중을 근디 집어서 개를 한 마리 먹였어, 쪼그만걸. 아 사람이 나오고 하니께 인제 사람하고 같이 나왔디 이거야. 나오니까 그리고 자시고 짹 소리가 나더라. 그래 금방 보니까 개가 없어졌다 이거야. 그래 인자 불켜가지고 보니까 개는 없고 할 할아버지가 갖고 온걸 보니까 호랑이가 먹던 개 제 밥을 뺏어갔고 왔인께 이놈이 줄렁 더 뺏기고 뭐 하니까 덜렁덜렁 쫓아와서 보니까 그 사람 많으니까 그 밥을 못 뺏어 가고 하니께 나왔던 강아지를 물고 갔다 이거여, 개를 대신해서. 그래 인제 그거를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구. 그전에는 범이 많았었

는데 여기도.

옛날에 한 마을에 에 아주 노름, 노름있어. 화투놀이. 이것이 심했데요. 하 근디 그 동네 인저 건달 비슷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전적으로 노름을 말리는 사람이여. 그저 항상 하듯 쫓아다니며 말려. 그래 노름꾼들이 그 사람 때문에 성가셔 노름할 데가 있어야지. 쫓쳐. 아무디 가면 쫓아와서 못하게 방해를 하기 때미 그 인저 하루는 이 사람들이 저녁을 먹구서 야 이놈 때문에 노름을 못하니께 노름할 곳을 찾아보자고 말이지. 옛날에 왜 저 짙은 산골에 많이 숯가마 빈 디가²⁰⁾ 있는데 “야, 우리 걸리 가자. 거기 가서 이 놈우 자식이 거긴 못 찾아 올거다.” 그 인제 저녁들 먹고 슬슬 그놈 그 사람을 피해서 인제 글로 모였단 말이여. 그래 이놈들이 거기 모여서 인저 노름을 한다 이거여, 불켜놓고. 숯가마 굽는데 가서. 그래 이 사람은 암만 이놈들이 할 노름할 장소를 갖다가 찾아도 영 없어. 그 인저 밤 12시 쯤 돼서 이렇게 한 군데서 돌아댁기다 찾다찾다 못 찾고서 인저 사방을 둘러보니까 산골짜에서 불이 반짝반짝 뵈거던. 야 이놈들이 여기 있는 게라구. 인제 무서우니께 몽둥이 하나 질질 끌구서 참 산골에 쫓아갔어. 아 중간썸 올라 가다보니께 숯가마 구멍인데 아 보니께 숯가마 구멍이 앞에 그냥 누런 게 이렇게 쭈구리고 앉아있단 말여. 아 저게 뭔가 이렇게 보니까 아 호랑이란 놈이 이렇게 앉아서 그냥 그 안을 쳐다보고 있더라. 근디 그 속에서 재갈재갈 사람 소린 나고 야 요놈들이 여기 틀림없이 뭐가 있구나 하고서. 살살 범한테 안 들키게 가까이 가보니까 그 놈들이 거기서 노름을 하고 있고 아 호랑이란 놈은 그걸 앉아서 구경하고 있다는 겨. 들여다 보고서 어 재미있는지. 그래 느닷없이 올라가서 그냥 막 호랑이 밀방댕이를 그냥 몽둥이로 쳤디야.(웃음) 아 이놈이 호랑이가 깜짝 놀라 그냥 갈 데가 어딴어. 그냥(웃음) 그 구멍에 쭉 들어갔디야. 들어가니께 이놈들 노름꾼들이 바깥에 호랑이가 있는 사람이 있는지도 몰르고 그냥 하고 있다가 인제 냅다 호랑이가 뛰어 들어오니께 그냥 막 돈 이고 뭐고 집어 팽기치고 그냥 다 도망쳤다 이거여. 그 인저 호랑이도 도망가고 (조사자: 아.) 이놈이 살살 들어가서 인저 가보니까 돈이고 뭐 다 놓고 갔거던. 아 요놈들 혼났구나하고 이제 돈 다 걸어서 나와서 그 이튿날 그 놈들 만나서 “야, 이놈들아 니네 어제 어디가서 노름했니.” “야, 이놈아 말도 마라. 임마 (웃으면서) 산골에 가 노름하다가 호랑이 만나 죽을 뻔했다.” 그라고서 그 사람들 그 돈 갖다가 없는 사람 구제하고 그 다음부터 그 사람들이 호랑이한테 혼나구서 노름 안터래여.

【농은리 설화 3】

도고면 농은리 잔골 이태영씨 집, 1995. 6. 23.,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이태영(남, 77)

동자삼 이야기, 이정승의 하녀와 산삼, 공주 마곡사의 목대사

*부인인 고영수(高榮秀.68)씨가 동자삼 얘기를 간단히 하고 옛 사람들의 효성스러움을 강조하면서 그런 미덕이 사라진 현대의 세태를 비판하자, 자기가 동자삼 얘기를 자세히 해 주겠다고 하면서 구연을 시작했다.

농은, 도산 앞, 뒤

하 아버지가 병이 들었는데 허 지금은 병원이 있지만 옛날에 병원이 어딴어. 한국 아낙네 한약 지어다 다려 먹는 거백엔 몰랐거든. 옛날에 병원이 어딴어. 병원이 하나나 있었간? 그래서 (녹음 불량) 좋다는 거 써도 안 들어서 위디 한 동네 가니께 자기 아들을 지끔으로 말 하자면 강원도 금강산 절 같은 데나 홍산 무량사들 가 봤어? 흥 흥산 무량사나 저기 저 무엇이 동학사 가 봤어? 그런 절루다 기서 자식을 공부 가르치러 보냈어. 보냈는데 옛날엔 학교가 있어? 한국 아낙네 한문이여 한문. 국문은 저기 저 어떤 할아버지지?(부인:할아버지) 아녀.(녹음 불량) 저 화장실에서 국문을 지었다는 거여. 그 냥반이. 그래서 한문은 그 냥반이 지은 글이고 전부 옛날에는 중국 한문을 배았는데 한문 배우러 보냈는 기여. 옛날에 과거 보러 가서도 에 과거 보러 가서 베실한 것도 한문이 능통해서 그 문제를 내놓는걸 다 문젠 해야 지금 저 학교에 시험보듯 그래 갖고 이게 에 베풀하는 게거든. 그런데 어 그 공부를 갈리러 보냈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께 자식은 또 나면 되지마는 아버지 세상을 버리면 영고만이거든. 그 아버지가 의 의관을 자기 자식 텔러 절로 가는 기여. 잡어 맥일라고 절간에 이렇게 올라가는데 산중이니께 보통 짚을 꺼여? 올라가니께 아들이 내려와. “너 내려오니?” “예.” “가자.” “예.” 데리고 와서 아랫방에 들어서매 인저 마누라는 뭘 꿩이는 기여. 큰 가마술에다 고분나게 게다 버쩍 들어다 집어 쳐 넣고 소두방 둘루고선 있는 기여. 게 인저 풀신 과진²¹⁾ 다음에 물을 떠다 아버지질 맥였어. 맥였는데 뭐가 그 삶았는디 사람도 아니고 암것도 없어. 무슨 물이 아마 한 서너 동이나 붓구서니 산골이니께 나무 떼서 그냥 아마 물통어데 꿩였던가 버. 암 것도 없어. 그래서 그 물을 맥이니까 자기 아버지가 없는 청춘이여. 그랬는데 인저 자식은 없지. (테이프 뒷면으로 교체) 인살 할라고 절에 갔어. 가니께 인제 주지를 만났어. 인제 방으로 들어가 앉았는디 “아무개야,너 아버지 오셨으니 들어와 인사드려라.” 그레여. 그에 들어 오는데 보니께 아들이여, 자식이여. 그래서 인제 인사하고 자식은 나간 뒤에 주지 보고 그란 기여. “아니 내 자식을 이래저래서 갖다 삶아서 아버지 약해드렸는데 웬 일이냐?”고. “허허, 참 성심이 지극해서 자식 살리고 부모 살렸다.” 말이여. 여기 동자삼이 쌍으로 생겼단 말이여. 쌍으로 동자삼이 암놈 하나 숫놈 하나 쌍으로 당겼는데 숫놈이 없어. 암놈만 동자삼이 하나만 땡긴단 말이여. 그에 동자삼 갖다 삶아 맥인 기여. 에? 동자삼이라는 것이 낮에는 사람으로 변해 갖고 돌아 당기고 밤이는 사람이 되어, 응? 그래서 그 동자삼이라는 것이 지금 있다. 그래서 아들 살리고 부모 병 고치고 그레 효도 노릇한 게고.

농은, 도산 뒤

또 한 사람은 서울 이정승이 집이 가서 참 이정승이 집이 식모도 있는 시약시가 있었어. 지금도 식모살이 있잖어? 그치만 옛날이야 정승에 집이나 그 대감네 집이서 뭐 밥해 먹는 거 월급이나 준 중 알어? 월급도 없었어. 그냥 무료 봉사여(기침) 근디 서울 이정승 집에서 시약시 하나가 있는데 어제 식권이 고기를 사러 나갔다 돈이 서푼이 모잘라 고기를 사다 보니께 쇠고길 서 그때 이 이 옛날에 서 돈이라면 큰 동이여. 일권거리, 옛날에 일권 거리 서 돈이라면 지금 일권 그라면 만원 폭도 넘어, 옛날이. 그에 그 총각이 서 돈을 꿩 졌어 이따 아침해 잡숯고 가져 올 테머는 줄테면 어 이따 갖다달라고 서 돈을 꿩 졌어. 근디 이 사람도 이 시골서 머슴 살다가서 하도 지겨워서 그냥 권네 보고 얘기하니께, 옛날이 일원이라며는 컷지. 일원만 달라고 해서 일원 갖구서 서울로 도망간 기여. 그에 서울 가서 그냥 돌아 당기느라 빙빙 와가로. 그라다가 그 그 그런 사정을 보고서 안타까우니까 서돈을 꿩 졌는

데, 나 따라 가자는 거여. 그에 데리고 갔어 데리고 가서 그 시약시가 머리루다 이렇게 들어
 가야 됐는데 그 어렵다구서 들여보내구서 인저 아침 먹은 후에◆◆◆◆◆여보, 당신은
 나하고 살아야졌고 대감한테 문안드립니다.◆◆◆◆◆데리고 간 기여. 안으로 들어간 기
 여.◆◆◆◆◆대감님, 문안드립니다.◆◆◆◆◆하구서 문 저 문을 열어야지.◆◆◆◆◆
 ◆저 서방짜리올시다.◆◆◆◆◆하니께 ◆◆◆◆◆응, 눈은 있구나◆◆◆◆◆
 ◆◆◆◆◆응, 눈은 있구나◆◆◆◆◆마님, 문안드립니다.◆◆◆◆◆하고 또 응
 문안 드리니까◆◆◆◆◆저 서방짜리올시다.◆◆◆◆◆인저 궁께◆◆◆◆◆응, 그래
 도 어지간이 봤구나.◆◆◆◆◆그게여. 그에 인저 만날 먹구서 사랑방이 드러누웠어. 다른
 놈들은 시설하고 도무지 일 안하고 식전이면 야단이다. 그 아무제 방이 그 참 하인들이 그
 집 그집이서 먹고 사는 거여 시설해주고 심부름해주고 일해주고 아무데 방에 있는 놈은 노
 다지 쳐 먹고 놀어. 인저 이 소리가 마누라가 듣기 좋아? ◆◆◆◆◆여보. 내일랑 나가서
 저 사람들하고 같이 시설하고 하라.◆◆◆◆◆고 하니께◆◆◆◆◆나, 그런 거 안 해
 봐서 못해여.◆◆◆◆◆(웃음)◆◆◆◆◆그럼, 뭘 했소?◆◆◆◆◆장사를 좀 해야겠는
 데 돈이 없다 그게여. 돈 얼마 가지면 되느냐니께◆◆◆◆◆돈 한 삼십 원만 가지면 되겠
 다.◆◆◆◆◆그때 삼십 원이야 삼 원일테지 삼 원. 삼 원이라도 굉장한 돈이야. 그래서◆
 ◆◆◆◆◆대감님, 문안드립니다. 제 서방짜리가 장살 좀 하겠다는데 돈 좀 모아주시오.◆◆
 ◆◆◆◆◆얼마나?◆◆◆◆◆삼원이요.◆◆◆◆◆줬어. 그 놈
 갖고 가서 녀마전에 녀마쳤어. 전부 녀마. 지금도 서울가면 왜 옷 가게 있잖어? 파는, 그에
 옛날에 녀마장이여 그제. 녀마 사서 하루는 동대문 가서 옷 없는 사람 옷 준다니께 그 뭐
 공짜준다 좀 잘가? 옛날이나 지금이나 공짜로 다 줬어. 그 이튼날 또 동대문이가 준다니께
 또 다 줬어. 돈 인자 돈도 없어 다 팔리고. 그래 인저 돌아서²²⁾◆◆◆◆◆돈이 계약해 놓
 고 좀 모잘른다.◆◆◆◆◆고. 얼마 모잘느냐니께 또 그만큼 또 요굴 했어. 얘기하니께 대
 감이 또 서슴지 않고 내 줘. 정승이 그래서 갖다 주니께 그래 갖고 또 녀마쳐서 하루는 남
 대문에서 주는 기여, 남대문. 아 남대문 가서 주다 인저 보니께 인저 옷이 남아. 딱 두 벌이
 남아. 영 오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께 가만이 생각하니께 인저 대감 정승 알면 죽게 생겼거
 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기여. 그 옷 두벌 짙어 싸 짙어지고. 도망을 가는데 워디로 가느냐
 먼 강원도로 들어갔어. 옛날에 아마 강원도 사람이 별로 안 살았던 가봐. 강원도 들어가서
 강원도 옛날에 강원도 가면 십리 가서 집 하나 이 십리 가다 집 하나 그랬대여. 어뎜데도
 한참 가도 집이 없어. 차 건너서 오두막집이 붙어 보여. 쫓아갔어 그리 워칭히여. 쫓아가니
 께 두 노인네여. 두 노인네 있어. 근데 저녁 대다주는데 무수나물,²³⁾ 무수나물 까순 거 한
 대접 갖다줘. 무수나물(조사자:무수나물?) 무수나물 무수 깎아서 상차려 먹고 하잖어? 무수
 나물 한 상 한 대접 까쉬다 줘, 그제 인삼이여 인삼, 무수가 아니라. 그놈을 먹고 인저 미안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옷 한 벌씩 내주며 아 비단옷 그거 나 주니 얼마나 좋아 입으시
 라고 그에 입으시라고 하고는 줬어.◆◆◆◆◆정성이 지극하니 자고서 요 뒤에 올라가머
 는 삼 밭이 있어 널 근력껏 캐지고 가거라.◆◆◆◆◆그거여, 근력껏. 심대로²⁴⁾ 가져 가.
 궁께 그제 산삼이여 산삼, 사람이 간 게 아니라. 자고 일어나니까 바위 뚝이여. 널따란 바위
 뚝에서 잤어. 사람도 없구 아무것도 없어(조사자:아~.) 그에 올라가 보니께 쪼끔 올라가 보
 니께 삼밭이여. 참 아주, 삼인데 뭐 몇 십 년씩 묵어갖고 참 근력껏 캐갔어. 캐지고서 밀떠
 러지고 오지 인저. 와서 응 인저 저물게 와서 찾아가서 마누라 방에 인저 마누라방은 안으
 로 들어 들어가가지고 들어가지고 있더라. 가서◆◆◆◆◆여보, 나 왔어. 문 좀 열어.◆◆
 ◆◆◆◆◆여보, 온 체하지 마고 얼른 가소. 죽으면 나나 죽지 왜 당신까징 죽어.

잘못하면 큰일난다고. 그 사람은 통한 사람이여. 그이가 생선 먹고 밥이랑 어딴어? 해변가 점심때 나가면 생선하나 필적 뛰어나와. 그거 하나 날로 깨물어 먹고 저녁때 가면 하나 뛰면 그 놈 하나 깨물어 먹고 식전에 나가면 하 하루 시 게씩²⁶⁾밖에 안 나와. 생선두 그 한 마리씩 생식하고 산 사람이여, 그 목대사라는 사람이. 그래구서 이제 시님 데리고 그리 가 빠러. 시님 옆구 내 뺏어. 그래서 게 가서 시님도 죽고 목대사도 거기 가서 죽었어. 그게 무슨 섭인데. 지금 거기 뭐 지금 그 다 집 졌을 걸 뭐. 그랬다는 기여, 목대사가. (조사자:예.)

다. 도고면 마을 3 (덕암리)

1) 조사일정

1995. 6. 23., 김명선 작성.

오후에 덕암리를 찾았다. 먼저 이장집에 가서 마을개관할 자료를 얻고 구연자 강병식씨를 추천받았다.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나 별로 채록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 이종임씨가 <장승제의 유래>, <까마귀 덕에 살아난 임금>을 구연해 주었다. 특히, 이종임씨는 이순신 장군의 직계 자손이라고 자랑을 했는데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 융숭한 대접을 받고 4시 30분에 강병식씨 집을 나와서 5시쯤 향산리 숙소에 도착하였다.

2) 마을개관

【도고면 마을 3】

336 - 910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덕암리.

1995. 6. 23., 서원기 조사.

둘째날인 6월 23일 오후엔 덕암리를 갔었다. 버스를 타고 한참을 들어가야 하는 덕암리는 삭실이라고 부른다. 안삭실, 바깥삭실, 수실이라고 세 군데로 나뉘어 부른다. 마을이 군데군데 밀집되어 있고 마을 안에까지 버스가 들어간다. 총인구는 170여명 43세대이고 여자와 50세 이상 노인이 많다. 농업과 목축을 중심으로 하고 특용작물 재배도 한다. 전반적 생활수준은 보통이라고 한다. 교육 시설은 중학교까지 도고, 고등학교는 온양으로 다니고, 행정기관은 없다. 기독교인은 없고 암자가 하나 있다고 한다. 이 마을에는 오래 전부터 해왔던 장승제가 있는데 닷새 정도 지내는 장승제는 해방 후에 없어졌다고 한다.

3) 구연자 조사

【덕암리 구연자 1】

도고면 덕암리, 172번지, 이종임, 여, 74.

1995. 6. 23., 김소영 조사.

남편인 강원식씨와 동갑으로 과수원을 하면서 조류 사육도 겸하고 있다. 강원식씨는 고등전

문학교를 나와서 한동안 공무원 생활을 했다고 한다. 이종임씨는 남편에게 매우 순종적이고 온화한 성격을 지닌 듯했다. 체구가 크고 건강한 편이었으며 서울 가 있는 아들에 대한 사랑을 많이 늘어 놓았다. 기독교에 대해서는 매우 부정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어서 조사자가 갔을 때 선교하러 온 사람들인 줄 알고 본 척도 하지 않고 어서 가라고 하다가 조사자의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집으로 가서 여러 가지 음식대접을 받으면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다.

먼저 어려웠던 자신의 시집살이 얘기를 한참 한 후 옛날 얘기해 주겠다고 하면서 <장승제의 유래>, <까마귀 덕에 살아난 임금>에 대하여 구연하기 시작했다.

4) 설화 자료

【덕암리 설화 1】

도고면 덕암리 노인회관, 1995. 6. 23., 김명선, 김소영, 서원기 조사.

이종임(여, 76)

장승과 장승제의 유래, 까마귀 덕에 살아난 임금.

덕암 뒤

옛날 얘기해? 그러면? (조사자:예, 옛날얘기 해 주세요.) 여기 장승이라고 장승이라고 여기 와서 장승거리논 그 논이가... 장승거리 거기다 장승을 세웠다. 그래서 장승을 세웠다. 그래서 장승거리라 그래지. 이 장승이 옛날에 왜 장승이냐. 근데 왜 장승이라 그랬느냐. 옛날엔 장승이 전부 지나대니면 침을 뱉고 돌을 던지고 죽일 놈이라고 욕을 하고 그러더라고.(조사자:예.) 왜 그러느냐. 모녀 궁녀가 사느디 아버지가 딸을 하나 데리고 사느디 딸이 성장을 하구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딸을 불러 그러더라고.(조사자:예.) 그러니까 이 딸이 하도 기가 맥히 짊어.(조사자:예.) 아버지가 그러니까.(조사자:예.) 그러니까 이 딸이 인저 아버지 마을의 꼬트머리 가서 개소리 세 마디만 하고 오시오. 그러면 내가 아버지 말을 들어 드리리다. 그러니까 아 그러라구. 그러구선 그 날 마을의 끝에 가서 뽕뽕뽕뽕 개 짖는 소리를 세 마디를 하고 오니께 문을 열어보니까 딸이 자살을 해버렸어.(조사자:예.) 그러니까 세상에 이런 놈이 있느냐구 말이여. 그 놈의 화상 비슷하게 그려 가지고 장승 맹길어 가지고 지꼈이다가(조사자:예.) 박아놓고 저마다다 땡기며 침을 뱉고, 돌로 후려 갈기고, 욕을 하고 그러고 지나 땡기거덩. 그렇게 하기를 땡 십년을 해 내려온거라 그게 그 장승이.(조사자:예.) 그러면 그 장승이 자기가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다 하드래도 무수한 타격을 그렇게 받고 있는데 어느 날 한 농부가 지나가면서 절을 하드라. 장사를 장사를 하러 가는데 돈도 없이 장사를 한다고 나가느디 ‘이번이 가 돈 좀 잘 벌여가지고 잉 돈 벌여가지고 와 집에 와서 처자식하고 잘 살게 장승님 좀 도와 주슈.’ 이렇게 절을 했던 말이여. 그런데 그 장승이 허구헌날 수 백년을 두고 그렇게 욕을 얻어먹고 그렇게 이 돌루다 맞고 그렇게 살았느디 저 사람은 나한테 절을 해가며 저렇게 벌으니께(조사자:예.) 될 수 있으면 내가 이거를 갖다가 도와 줘야 되겠다고.(조사자:예.) 그래서 그 사람을 잘 도와줬데요, 장승이. 그랬는데 이 사람이 돈을 벌여 가지고 올 적에 그냥 그냥 가지를 안하고 술을 사고 과일을 사고 고기를 사가지고 가서 그 앞에 장승제를 지냈데요. 지내면서 너무너무 고마워서 장승님이 도와 주셔 가지구 이렇게 부자가 돼 가지고 간다고. 근데 역시 그 날도 날이 저물었더라. 그래서 거기서 인저 그렇게 하루 저녁 지내고 장승제 지내고 인저 술을 잔뜩 먹고 그리고 나머지 장승 앞에다 쏟아놓고

제사 지낸 음식을. 그렇허구 드러누워 자는디 꿈을 꾸니께 장승 혼이(조사자:예.) 들어갈 적 엘랑은 집이 딱 대문 안에 들어설 적에는 방에 들어갈 죽이 서서가지 말고 옆으려서 기어 들어가라 그러더라. (조사자:예.) 현몽을 한 거지 꿈에. 현몽을 한 거여. 장승 밑에서 이렇게 드러누워 자는디 그 장승이 꿈에 현몽을 하는데 집이 들어갈 적엘랑 걸어 들어가지 말고 대문 안에서부터는 기어 들어가라 그러더라. 네 발로 기어 들어가라고, 꿈을 깨고 생각을 하니께 암만해도 이상스러워. 그냥 꿈이라고 하구선 쫓히기는 어렵거덩?(조사자:예.) 역시 또 장승이 부자를 되도록 도와 주시고 또 장승이 그런 현몽을 했는데 안 들을 수가 없단 말이여. 그래서 그리구 낮에 들어가지 말고 밤에 들어가라구.(조사자:예.) 그래서 밤이 이렇게 어둑어둑할 적에 이렇게 기어 들어가니께 오메나 마루 뉘 놈이 하나 칼을 들고 있드랴.(조사자:혜~.) 그러니께 요거는 뭐냐. 여자가 남편이 없는 동안에 간부를 뒹쫓지.(조사자:아~.) 그게 인제 그게 돈 벌어 가지고 남편이 저녁에 온다더라 하는 소문을 듣구서는 인제 간부가 거기 인제 칼을 갖구 있다가 남편이 들어와서 인제 잘 거 아니여? 이러구 저러구 얘기하구 자머는 찢러 죽일려구.(조사자:예.) 기집 사내가 쫓단 말이여.(조사자:예.) 그래서 그 뒤로부터 그래서 인제 그 때 인제 죽시 그 마루 밑에 있는 놈을 끌어내 가지고 법에 처벌했을 꺼 아니여?(조사자:예.) 기어 들어 갔으니께 그걸 봤지. 걸어가면 못 본다 이거여. 그래서 장승이 그거를 저거해 준거라고. 그랬는데 그 다음부터에는 너두 나두 장승제를 지낸다는 거여. (조사자:아.) 장승제를 지내면 잘 되니께. 그래서 장승제를 지내고 천하대장군, 지하여장군을 쫓잖어?(조사자:예.) 그래서 그 뒤로부터 저거래도 저렇게 해 놓는 거라구.(조사자:예.) 그전 같으면 장승의 천대가 말할 수 없었지.(조사자:예.)

일국에 한 임금이 그 저기 뭔가 어디로 사냥을 가셨는데 그 점쟁이가 그랬는지 어느 충신선지자²⁷⁾가 하여튼 그런 얘길 했어. 피나무를 조심하라구.(조사자:피나무요?) 응.(조사자:예.) 옛날에 사람이 이렇게 시집갈 때 가져가는 케짜 같이 생긴 이게 피나무로 함을 맹기는 거여. 지금은 가방을 갖고 다니지만은 그 때는 함이라고 케짜 같이 생긴 것을 갖고 갔거덩. 그러니께 피나무를 조심하라. 피나무를 열어보머는 둘이 죽고 피나무를 안 열어보면 하나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 까그때²⁸⁾가 뭘 떨어트려서 집어서 보니까 그렇더라. 그런데 임금이 너무너무 착한 임금이라 어유 살인을 하나나 해야지(조사자:예.) 어떻게 둘을 죽이느냐고 안 된다고 안 열어 본다고 인제 충신들이 안 된다고 열어 봐야지. 둘을 죽일만 하니께 둘 소리가 나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럴 리가 없다구. 그래 권유하고 이런데 피나무가 함만 맹기는 거지 아무 나무나 맹기는 게 아니고 피나무를 또 아무거나 맹기는 게 아니거덩. 그러니까 나라 안에서 추적허니께 중전마마 함밖에는 없다구.(조사자:아~.) 그럼 중전마마 함 속에 뭐가 들었느냐. 그러니께 어떻게 중전마마 함을 열어 볼 수가 있나?(조사자:예.) 그러나 그걸 열어 보머는 둘이 죽고 안 열어보면 하나가 죽는다 했으니께 충신들이 그걸 열어 본다고 간했다고, 임금님께. 딱 열어보니께 거기에 중전이 음한 여자라 거기다 간부를 뒹쫓다고.(조사자:아.) 간신을. 그렇허구 저희끼리 즐기는 거여.(조사자:아.) 그 날 저녁에는 임금을 죽이게 생겼다고.(조사자:아.) 그래서 까그때는 충신이고 까치는 간신이라 그래. 까치는 짹짹 반가운 거만 아침에 알려 주고 저녁에는 그 충신이 저 까그때가 쫓으면 사람이 죽는다구 그래. 까그때가 쫓으면 아이고 또 누가 죽을래나.(조사자:아.) 이렇게들 말들을 하거덩. 그래 까그때가 그걸 떨어트렸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약식들을 해 먹었지 옛날에는.(조사자:예.) 지금은 오탁밥을 해 먹잖아. 까치한테²⁹⁾ 오탁밥을 던져 주느라고. 옛날엔 약식을 갖고 던져 줬어. 상감마마가 살았으니께 얼마나 좋아. 그니께 충신들이 그냥 약식까지 해서 그냥 밭에

다 쫄조르 까그매들이 와서 좇어 먹는다고. 그 은혜를 갚느라고 그래서 까그매가 음침하게 생겼잖아. 시커먼 게.(조사자:예.) 그리고 사람 죽을라면 으레껏 그 까그매가 짓어요.(조사자:예.) 까악까악하고 죽지 말라고 몰려 땡겨. 몰려 땡겨서 요 한 한 오륙년 전까지도 많았어. (조사자:까그매가.) 시커먼 거.(조사자:까치랑은 틀린 거죠?) 잉 까치하곤 생기는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는데 (조사자:예, 새까만 거.) 새까맣고 까치는 하얗고 그래서 까치는 간신 죽은 녀이고 이 저기 까마귀는 충신 죽은 녀이야.(조사자:으 응.)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

라. 도고면 마을 4 (도산리)

1) 조사일정

1996. 12. 17., 이호정 기록

도산리 보완조사를 위해 추적추적 내리는 겨울비를 맞으며 17일 11시 10분 경 도산 2구에 도착해서 윤주상씨를 만나 비닐 하우스에 들어가 <효자문 이야기>를 듣고 도산 1구 이장 김환능씨를 찾아갔다. 김씨가 손수 전화를 걸어 구연 가능자를 찾았으나 마을 노인들이 모두 장례식에 가서 만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김씨의 안내로 화천리 노인정에 12시 30분 경에 도착했다. 마침 점심식사 중이어서 10분 정도 기다려서 김영훈씨와 얘기할 수 있었다. 김영훈씨는 유도회 신창지부장으로 '김익생 효자문'에 대해 연대와 유래에 대하여 정확히 설명해 주었고,<송상침 이야기>도 해 주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노천용씨가 <사치골·둔덕봉·노루목의 유래>와 <열녀비 이야기>를 들려 주었다. 그리고 옛날에는 도산리에 서원이 있었는데 대원군이 서원철폐령을 내려 도산리의 서원이 제일 먼저 없어졌다고 설명해 주었다. 노천용씨의 구연이 끝나고 다음 조사지인 농은리로 향했다.

2) 마을개관

【도고면 마을 4】

336-910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도산리

1995. 6. 23., 김선희 조사.

'느랭이'라고 불려졌던 도고면의 면소재지인 도산리는 주로 밭작물을 많이 재배하는데 특히 수박 농사를 많이 짓고 있다. 여자가 남자보다 5% 정도 더 많다. 면소재지라서 면사무소가 위치해 있어 매년 정월 초이렛날에는 '산제'를 올린다고 한다.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옆으로 펼쳐져 있는 마을은 요즘 새 건물을 짓느라고 어수선한 분위기였지만,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신선이 살았을 듯한 첩첩 산중에 동화 속에서나 나올 듯한 좁다란 오솔길이 나 있어 호젓한 느낌을 주었다.

1996. 12. 17., 김세연 조사.

도산리의 자연부락 명칭은 놀랭이, 어랑촌이다. 가구수는 약 32세대이고 총인구는 110명

정도이며, 남녀 비율은 여자가 조금 높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축산업과 밭농사에 주로 종사하고 있어서 마을에 축사와 밭이 많다. 종교는 불교와 기독교 신자가 비슷한 비율을 이루고 있다. 교육시설로는 화천초등학교, 도고중학교 등이 있고 공공기관은 도고농협 도산지소가 있다. 민속행사로는 정월 초이렛날 산신령에게 드리는 산제사가 있다고 한다.

3) 구연자

【도산리 구연자 1】

도고면 도산 2구 400번지, 노천용(盧天龍), 남, 70.

1995. 6. 23. 김세연 조사.

돋보기 안경을 쓰고 있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다. 나이치고는 굉장히 정정하고 젊었을 적의 모습이 남아있다. 경로당에서 어린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고 있다. 이야기 할 때 실감나게 이야기하려고 의성어와 손동작을 많이 사용했다.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말씀을 또박또박 잘해 주었다.

주로 호랑이 잡은 얘기를 많이 해 주었다. <호랑이 잡은 이야기 1>, <호랑이 잡은 이야기 2>, <호랑이 잡은 이야기 3>, <효심으로 고친 어머니의 병>, <강절 소선생님>, <송상침 이야기> 등을 구연해 주셨다.

1996. 12. 17. 신명화 조사.

화천리 노인회관에서 만났다. 40년째 도산리에 살고 있으며, 보통학교를 나왔다. 풀썩 스웨터를 단정하게 입었고, 머리 모양에 신경을 써 멋을 내어 세련된 모습을 보여 주었다. 성품은 매우 인자하여 조사자를 손자 대하듯 했다. 주변 마을 아이들에게 한문을 가르치는 선생님다웠다. 구연시에는 온몸으로 제스처를 해 가며 열심히 설명을 하여 조사자들에게 매우 협조적이었다.

4) 설화 자료

【도산리 설화 1】

도고면 화천리 노인회관, 1995. 6. 23.,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노천용(남, 70)

효심으로 고친 어머니의 병, 강절 소선생님, 송상침 이야기, 오성대감 이야기, 호랑이 잡는 이야기 1·2·3.

농은, 도산 앞

(녹음 안 된 부분:형제가 어머니 한 분을 모시고 살았는데, 어머니가 병이 들었어. 큰 아들은 의학이 발달했는데 어머니 병을 못 고쳐.) 아 다른 사람 병은 다 고쳐도 자기 어머니 병

은 안 고친단 말이여. 아, 그러니까 그 아우가 ◆◆◆◆◆형님, 어제서 형님같이 그 의술이 고명하신 분이 다른 병은 다 고쳐도 왜 우리 어머니 병은 안 고칩니까?◆◆◆◆◆예, 우리 어머니 병은 나는 못 고친다. 너는 고칠 수 있어 나는 못 고친다.◆◆◆◆◆아, 지가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아녀, 너는 고칠 수 있어. 나는 못 고쳐.◆◆◆◆◆아 형님 그제 무슨 말씀이유. 나는 아무 의술도 없는 사람 아닙니까? 농사나 짓고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이 형님은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형님이 못 고치는데, 지가 어떻게 고칩니까?◆◆◆◆◆니가 꼭 어머니 병을 고쳐야겠네.◆◆◆◆◆“아 고쳐야 하고 말구요. 어머니 병을 어떻게든 고쳐야지요.◆◆◆◆◆(옆에서 다른 말을 걸어 잠시 중단)◆◆◆◆◆그러면 내가 고칠 테니 형님이 그럼 방법을 알려주슈. 내 무슨 짓이라도 하겠습니다.◆◆◆◆◆니가 무슨 짓이라도 하지? 어머니 병을 고친다면 무슨 짓이라도 한단 말이냐?◆◆◆◆◆허구 말구요.◆◆◆◆◆그러, 그러면 내일랑은 일찌감치 어머니를 옆고서 남쪽으로 몇 십 리구 가거라. 몇 십 리구 가.◆◆◆◆◆며칠이 되든 자꾸자꾸 옆구 가거라. 어머니 병을 고치도록 무한 가거라. 가면 된다.◆◆◆◆◆그럴까요? 아니 그냥 가기만 하면 됩니까? 옆구서.◆◆◆◆◆그러 니가 가기만 하면 된다. 네 효심이 아니면 우리 어머니 병은 못 고치는 병이여.◆◆◆◆◆그러면, 그럭저지슈.◆◆◆◆◆저 형이 모든 것을 잘 알구 하는 걸 알기 때미◆◆◆◆◆우리 형님이 헛된 소리는 안 할 텐디 내가 이렇게 해서 고친다면.◆◆◆◆◆허구서 그 이튿날 옆구 나선 기여. 옆구서 노인네를 옆구서 쫓일 가다 어디 동네에 들어가면 인저 밥도 얻어먹고 또 자구선 또 가구가구 참 며칠을 갔어. 하루는 가다가 보니까 웬 산고개를 넘 짙은 산고개를 가다가서 산고개를 넘게 됐어. 무조건 남쪽으로 가라니까 그냥 가는 건데. 그에 그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간 산고개마루에 올라가서 좀 어려우니까 인저 어머니를 내려놓구서 쉬노라니까 그 건너 꼬랑에서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니 뭐라구 야단들 났어.

◆◆◆◆◆어머니 여기 잠깐만 계슈. 저기 이 짙은 산 꼬랑에 웬 사람들이 저렇게 야단이 무슨 곡절이 있는 모양이니 지가 좀 잠깐 가보고 오겠으니 여기 좀 앉아 계슈.◆◆◆◆◆◆◆◆◆◆그래라.◆◆◆◆◆그에 가 보니까 웬 나뭇꾼들이 큰 산돼지 하나를 잡아놓구선 그걸 파고 그 야단들이여. 아니 웬 산돼질 어떻게 잡았냐니까◆◆◆◆◆아 산돼지가 잠자고서 있는 놈을 우리들이 낮으로 잡았다.” 그 말이여. 그래 모두 그 길을 나 앉고 야단 났어.◆◆◆◆◆나도 늙은 노모님이 계신데 좀 나도 좀 쪼끔만 나눠달라.◆◆◆◆◆니께. “아 그렇게 허라구.◆◆◆◆◆피기 쪼끔 쥐어줘. 그래 그 고기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와. 오니까 ◆◆◆◆◆애, 그 피기 좀 날로라도³⁰⁾ 다고.◆◆◆◆◆그게 날로 쪼끔 썰어 드렸어. 그러이께 아 이걸 자시네. 자시더니 ◆◆◆◆◆아이구 목말라 죽겠다.◆◆◆◆◆아, 어찌 이거 먹으니 금방 그냥 목말라 죽겠으니 아 저 물좀 갖다 달라고 하도 야단해서 아, 그러니 어떻혀. 그 뭐 그길 왔으니, 그 아래 인저 언덕배기를 내려가니까 아니나 달라 참 물이 웬 바가지 같은 데가 물이 쪼끔 피였는데 지령이가 빠지고 이렇단 말이여. 그래 지랭이를 건져내끼사미, 그 바가지 같은 걸 가지고 왔어. 가져와서 어머니 잡수시라구 이렇게 따라 드러니까. 그 놈을 벌컥벌컥 마시더니 아이고 나 이제 병 아주 다 나쌌다, 아주 짝 나쌌다. 아무 거시기 없다. 아주 근력도 나고 도무지 나 병이 짝 나쌌다. 이게 무슨 까닭인질 모르겠어. 아, 그 돼지 피기 쪼끔 자시더니 금방내 목말라 죽겠다구요. 그 물, 물 뜨러 갔더니, 그 바가지 같은 게 있어 게가 물이 있어서 그걸 갖다 드렸더니 그걸 마시더니 아주 병이 아주 아주 났어. 그래서 인저 도루 집으로 와서 자기 형님을 찾아가서 그런 일이 있었다

고 그러니까,◆◆◆◆◆그렇게다. 바로 그게 그게 다 네 효심에 감동해서, 네 산신이 감동하셔서 그 돼지가 다른 돼지가 아니다. 그게 백년 목계 돼지가 백년 이상 먹은 그 치치라는 게 있어. 치치라고 그 인삼 같은 약이 있어. 그걸 타 먹고서 그걸 취해서 자빠져 자는 놈을 나뭇꾼들이 잡아가지구 구 껍질을 어머니가 잡숫구서 잡수니까, 갈증이 나셨다. 그 물을 구하러 갔는데 그게 사람 해골 바가지 물이여. 그게 다른게 아니라, 그 놈을 마셔야 되겠으니 내 의술로 워땡기 백 년 목은 돼지가 백 년 목은 치치를 먹고 죽은 그걸 구해며 어떻게 해골 바가지 물을 워땡기 구하겠다. 네 효심에 감동해서 그 산신이 도와줘서 그게 그렇게 된 것이다. 그런 걸 내가 어떻게 고치겠다. 네 효심으로 고치겠다.◆◆◆◆◆
 ◆◆◆◆◆참참 잘했다고 칭찬을 형님이 해 주셨다는 거. 그래서 자기 어머니 병을 고쳤대야. (자기는 며칠 동안이라도 얘기할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 얘기를 계속했다.)

소강절이란 분이 계셨어. 강절 소선생이라구 그러. 소강절이라고(음료수를 마시느라 잠시 중단) 강절 소선생님이라면 이 명심보감 같은 데도 그 양반이 말이 많이어.(조사자:예.) 이 소강절이라는 양반이 앞일을 잘 알구 모든 것에 점을 아주 잘 쳐. 성인이여. 말쑥 다 알아. 이 양반이 하루는 이렇게 사랑에 앓았다가 말하자면, 가래침을 뱉으려구 문을 슬쩍 열구서 가래침을 뱉으려고 하니깐 그때 마침 동네 아이 하나가 고 마당갓이 배나무가 있었어. 배를 몰래 그 강절 소선생네 배여. 그걸 따 먹으려구 그 나무 위를 올라갔다가 문을 화닥닥 여니까 절 보구서 문을 여는 줄 아구서 당황해 가지구 툭 떨어졌어. 이게 죽었네.(조사자:아.) 어,이거 참 불행한 일이지. 그이 이 강절 소강선생님은 그걸 알지도 못하고 그 문을 열은 게란 말여. 침 좀 뱉으려고 열으니까 제가 제 거시기로 떨어져 죽었어. 그러나 어쨌든 날로 말미암아서 사람이 죽었다. 지금 사람 같으면 나 죄없어. 나 죄 하나 없다구 할테지. 그런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여. 도력있는 선생님들은 그게 아니여. 그래서 인제 어쩔거나 날로 말미암아 사람 하나가 죽었으니 이 화가 언젠가는 내 집안에 있을 것이다. 이걸 인제 뽑어 보는 기여. 이걸 내 대에 가서 무슨 화가 그 화가 양화가 끼치나 자기 대에는 암만 따져봐도 그게 없어. 그러면 혹시 자식대에 가서 혹시 있다. 자식들을 전부 일생을 통해 따져봐도 그것이 안 닿아. 그러면 손자대에 있다. 저기 손자를 대를 따져봐도 없어. 위디가 닿는고 하니 5대 손에 가 다,그 양화가. 그러기 사람이란 것이 잘못하면 그만큼 세밀하게 닿는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아둬야 혀. 이 하늘 이치가 공연한 푸스름을 하는 게 아니여. 하늘은 요기도 하늘이라면 하늘이고 여기도 하늘이라면 하늘이여. 이 몸은 땅이 가 닿지만 마음은 하늘하고 닿았어, 통해여. 그래서 하늘에서는 이 마음을 쪼끔만 빼똥게 먹으면 다 알아. 그게 이 선생님이 하하 이걸 내가 어떻게 이 내, 내 5대 손에가서 닿는데 이걸 어떻게 구제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석함을 만들었어. 돌팍으로 함을 만들었어. 함을 만들어 거기다 비계³¹⁾를 써서 그 속에다 넣어 놓구선 확 봉하구서 이걸랑은 인제 자기 아들들 손자에게◆◆◆◆◆
 이걸랑은 아무데고 5대 손에 가서 급한 일이 있걸랑 열어봐라. 그 안에는 열어보면 안 된다.◆◆◆◆◆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그런 할아버지 그런 아버지 명이라면 워찌 안 지키겠어. 그거 뭐 철저히 지켜야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인제 물어봤어. 아주 그래고 그 집이 가 보로 아주 내려가는 거. 이 5대 손에 가서니 강절 소선생님이 5대손에 가서 어떻게 됐는고 하니, 그 등 너머 새로 글방을 대너. 글 읽으려 인제 글방을 대너. 글방을 땡기는데, 고 등 넘어가면 집 하나가 있는디 거기 이쁜 아가씨 하나가 있어. 아가씨 하나가 있는디 그때나 이때 아마 서로 사모하는 그 뉘시기가 있었나 부지. 아가씨가 그 개 그 도령 책 끼고서 책 이렇게 끼고서 그 길로 가면 그 아주 환장하졌어. 그래서 자꾸 말하자면 연애를 걸자 하는

겨. 이 총각은 안 된다구. 그 물론 그건 선생님의 후손이라 그랬던지 원 마음이 없어서 그랬던지 자기가 근신하기 위해 그랬던지 위했거나 거절을 한겨. 하루는 길거리에다가 편지를 뭇 써 놔는다. 집어 보니까 오늘밤 몇 시까지 와서 날 보러 오지 않으면 나는 이 세상을 하직하겠다는 거여. 죽겠다는 거여. 하! 이거 큰일났어. 이거 사람을 살려야 하겠거든. 이거 사람을 살려야 겠거든. 사람을 살려야지 살려놓구서 뭇 혼계를 해도하고 해야지. 사람을 또 죽인다면 절로 그래서 그날 저녁 먹고서 고시쫄해서니 거길 갔어 가보니 참 아무도 없는데 아참 그 방이 어찌기 바깥이라더니 그 방문을 열어 봤어. 열어보니까 그새 벌써 새악시는 칼로다가 자살을 해 해 하고 있어. 그래서 깜짝 놀래서 그러니 이거 어땡히어. 근게 뒷걸음지 나올 수백이. 나와서 나오는데 그 동네 부인네 하나가 봤어. 이 그 거기서 나가는 걸 봤단 말이여. 아 그 막 사람 이튿날 사람이 죽었다고 막 칼로 누가 이 색시를 찢러 죽었다고 야단났네. 그러니까 그 부 부인네가 그 총각이 아무 때 거기서 나오는 걸 봤다. 꼼짝없이 뒤집어 쓴 거야. 누명을 쓰게 돼있어. 아주 그래서 관가에 인저 이 총각이 잡혀갔어. 암만 발명을 해도 발명 들어요? 지가 뭇 길이 없어. 아 사람은 칼로 찢러 죽었지. 어? 본 사람이 나가는 거 본 사람이 있지. 꼼짝없이 죽게 뒀는데 이 저 아무 날 죽겠다고 인저 말하자면 지금의 사형 선고지. 그걸 받았는데 그 때 인저 그 집안에서들 야 이 이 오대 손인디 그 선생님께서로 오대 손인디 그 할아버지께서로 얘가 이렇게 급한 일이 있으니 이걸 안 볼 수가 없단 말여. 그래서 참 꺼내놓고 봤어. 그러니까 그 꺼담갱이다가 이래 보니까 꺼담갱이다가 그 현감은 그 골 현감이 돼야 열어봐라. 그 골 현감이 돼야 열어봐야지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는 거여. 그래서 인저 그걸 갖다가 인저 그골 현감에게다 갖다 바치는 기여. 이게 사실 4대조라든지 3대조라든지 우리 할아버지 그 강절 소선생님이라는 양반이 이런 비결을 해 놓고 가셨으니 이걸 열어보라. 그러니까 “아, 그러냐구 아무리 죄인의 5대조지만서도 이 양반의 비결이라면 우리가 그냥 볼 수가 없어. 배깬에다 단을 모아라.” 그 바깬 마당에다 단을 커다랗게 모아놓고 관가에서 나와서 단이 턱 올라서서 이걸 딱 열어볼라근게 와자근해서 뒤를 쳐다보니까 그 관 그것이 인자 오래 된 집이라 화각 무너져 바싹 주저 앉는단 말여, 집이. 그래서 그걸 열어보니까 ‘구지암양사 하니 오대어 구지오대손하라.’³²⁾ 너 대들보에 치어 죽을 너를 내가 구해 주니 내 오대 손을 구해라고.(조사자:아.) 이렇게 쓰여 있던 말여. 그러니까 그 때 그걸 아는 기여. 그 양반은 벌써 그렇게 될 것을. 그래서 아하 이 양반이 알기도 참 기막히게 알으셨군. 이 사람이 무지한³³⁾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 이 죄를 사하구 그 엘 구해주구 그 선생님은 자기 5대 손을 구하게 그렇게 되었다는 얘기가 있어. 강절 소 선생님은 그렇게 훌륭한 양반이여.

송상침이라는 분은 오암리서 태어났어.(조사자:예.) 근디 오암리서 (기침)어 세종대왕 그러니까 그전 그전이지. 그 태조 태조가 이 정 정종이나 인저 태조가 그때 무렵일 테지. 예 고부가 시어머니 하고 며느리가, 그 산고랑이 밭이 지금도 있어. 쫄그만 밭테기가 산고랑이 밭으로 목화를 따러 갔는데 그 목화를 따러 가다 보니까 그 밭 옆뎡이 가서 어떤 노승 늙은 중 하나가 쓰러져 있거든.(조사자:예.) 그래서 가 보니까 사람이 쓰러져 있으니 가봐야 할 것 아니여? 가 보니까 아주 기진맥진해서 쓰러졌어. 그래서 이 집이 그 어린애가 하나 며느리가 어린네가 있어서 젓이 이렇게 있거든. 그께 시어머니하고 상의해서 “야, 젓이라도 짜서 어떻게 먹여야지 배고파서 그런가 보다.” 시어머니가 그래서 인저 그 며느리가 가랑 잎사귀로 이렇게 젓을 짜서 요렇게 먹여주고 맥여주니까 눈을 뜨거든. 그래서 인저 잘 거시기 해서 그런게 이이가 인저 살구서 일어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구서, “내가 배가 고파서 그렇게

된 것을 날 구해줘서 그 은혜는 갚아야 할 텐디 갚을 길이 없ندي 내가 내 말을 들으려냐?” 구. 무슨 말씀이냐구. 내가 모자리 하나를 잡아줄테니 거기다 모를 쓰라구. 그래 어따 쓰냐 그러니께 거기서 쳐다보니 조 건네 조 산 조기 가서 모를 쓰면은 딸 하나는 잘 둘 것입니다. 따님 하나는 잘 둘 것입니다. 그래서 아 그러시냐구. 그래서 갔어. 그 집에서 거기다 모를 썼어. 쓰구서 낳은 것이 송상침이라는 따님을 낳았어. (조사자:예.) 그러니께 그게 거짓말이 아니지. (조사자:예.) 송상침이 참 나서 세종대왕의 후궁이 돼가지구 송상침이라는 분이 돼 가지구 그 양반이 딸을 낳아서 인저 그 인제 세종대왕의 딸을 난 거지. 옹주를 낳았지. 그래가지구 어디루 시집을 보냈는고 하니 그 한명회에서 잘 나오지만은 윤사로씨라구 있어. 윤사로하고 윤사로씨하고 한명회하고 한명회 따님이 윤사로씨의 며느리가 된 거여. 어 한명 그 윤사로게로 윤사로씨게로 정현 옹주가 시집을 갔어. 이 송상침의 딸이 시집을 가서 윤사로의 며느리가 되어가지고, 며느리가 돼가지구서 어 며느리가 됐어. 그래 가지구서 어 그가 참 정현 옹주한테 그래가지구 그러니까 그렇지 그러니까 인저 세종대왕하고는 사돈이 된 거여. 윤사로의 아버지는 어 그래서 그 윤부원군이라는 벼슬을 내려주고 이 송상침이라는 묘비에도 가보며는 한명회 벼슬 아주 한명회 벼슬 여간 많간? 상당 부원군으로서 아주 저 영의정 지나고 당최 뭐 벼슬이 뭐 한명회는 굉장한 벼슬 그 벼슬이 아주 순전이 다 써 있어. 요 요 건너에 그 모이가 있지만 그래 가지구서 참 그 후손들은 예 윤씨네들이 이 근방에는 안 살아도 많이 지금도 그 후손들은 살고 있어. 그래서 여기 윤부원군 산소가 여기 있구. 송상침이 산소가 여기 있고. 송상침 친정 그 모이 씨라는 모 그 모이들은 아들이 없어서. 그러니 어떤 것이든지 아들을 뒤야 해. 아들이 없어서 그 모이는 목고 그 저 성문 같은 게 모두 자빠지고 모두 쓰러진 것이 지금 저기도 있어 었어.(아들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얘기를 끝냈다.)

오성 오성대감하면 오성대감은 이항복이여, 이항복. 이항복은 선조대왕 때 선조를 모시구서 저 의주까지 가시구 한 양반이여. 그 양반 어려서 어려서 참 댕 살 적이 일인데 그 양반이 이 저 그런 얘기도 있지. 뭐 어 감이 감이 뭐 울넘어 이렇게 있을 때 그 그 놈의 집 뭐 하인들이 이? 뭘 따 먹었다고 뭐 그런 얘기가 있잖아. 왜 팔뚝을 쭉 내밀었는지 뭐이 그런 얘기가 있잖아. 그런데 그렇게 인저 영리하니까 하는 얘기여. 물론 야담일 테지. 그 오성 오성대감이 동네에서 어 그 어 총각 하나가 그 어떤 색시를 강탈을 했어. (조사자:으~.) 그래서 관가에 붙잡혀 갔어. 근데 인저 남녀가 유별하고 참 그래서 그런지 참아 그럴 수 있느냐고 인저 붙잡아다 참 그때만 해도 그 뭐 사형선고를 받게 됐어. 그에 이 동네 인제 저의 부모네가 저의 부모는 그거 살리고 싶을 거 아냐? 그거 살리구 싶어서 인저 당최 권세 무슨 돈이 있으니 무슨 권세 있는 집 일 찾아가 뭐하여 서울 사람이 할 수 없이 그 저 오성대감이 오성대감 어려서 그 어린네에다가 부탁을 하는 거. 왜 부탁을 하느냐. 이 어린네가 그게 관가에서 멀지 않은 동네에 살았던 모양이지. 항상 그 고을 원하고 가서 놀아 그 원이 하도 애가 영리하니께 그 애들이 그 영리하게 말하면 그 들을만 하여 누구든지. 영리하니께 데리고 와서 애기 좀 하라고 그러면 와서 조잘조잘 얘기도 하고 보고 들은 얘기도 하고 아주 재미가 있어서 원이 말이여. 심심할 때는 아주 좋아해서 개를 오기를 기뻐했거든. 기래서 원은 이렇게 데니는 줄 알고선 인저 와서 “도련님.” 그 아마 주인이었던가 보지? 오성대감은 양반의 후손이고 “도련님.” “왜 그류?” “아이 아시다시피 우리 아무개가 그런 짓을 하다가 이거 남 그른 것이지만 그런 짓을 하다가 죽게 되는데 원을 좀 잘 통해서 애기 좀 잘해 주면 개를 살려 줄 수가 있는데 도련님밖에 그 원을 통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여. 아 아이

하니 그 손도끼를 훌쩍 뛰어넘을 적이 이렇게 든단 말여. 가만이 산엿들 내려다 보니까 이렇게 들으니께 어떻게 되는데 하니 이 놈이 후닥닥 뛰어넘다가 그 면도칼 같은 도끼루다가 이렇게 하니께 그 배아지가 짝 끊혔어. 아 배야지가 짝 끊힌게 아 창세가 우루루 나오니 호랑이가 자빠져서 일어나들 못한단 말이야. 아 그 동네 사람들이 쫓아내려가서 보니까 호랑이가 참 창자가 우루루 나왔단 말여. 아무리 멧호라 하더라도 창세가 우루루 나오는데 도리가 없어. 그러나 우리네는 그런 담력이 없어서 못잡어. 그리고 호랑이가 뛰었는데 뉘 바로 가서(몸 시늉을 하며)요렇게 할 정신이 어딴어? 자빠냈버리지. 허나 그는 워낙이 담력이 좋고 해 버릇해서 이까짓 것 문제가 아니다. 너는 내게다 어떻게 할 것이다 이걸 다 알기 때미 아 어디 가까이 한 번 뛰어넘어도 가만이 있다. 두어 서너번째 뛰어넘어 요렇게 하니께는 아고 날다가는 살짝 배아지를 끊었던 말여. 그러니까 면도칼마냥 이 배아지가 짝 갈겨져서 잡았어.

또 한가지는 아이 어떤 집이서 일꾼을 두었는디 산꼐짝 동네에서 일꾼을 두었는디 아 이 나무를 지러 간다구해서 그라구. 아침먹고 있어도 영 안 와. 새벽에 간 사람이 허허 이거 어디 아무 산 고랑 그 짙은 산고랑 나무질 갔는디 아 이거 어찌 안 오자 그럴꺼 아니여, 주인이? 그래서 산 위를 슬슬 가 보니까 산 고랑에 가 사람이 벌떡 자빠지고 그 사람이 죽어 자빠져 있구. 정신을 놓은 거야,죽은 건 아니구. 정신을 놓고 자빠져 있고, 왼쪽뺨이를 보니까 호랑이가 나무 지개 밑에 가서 죽어 자빠졌거든. 아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불러가지구서 그 일꾼을 사람부터 구해야겠으니께 일꾼을 업어다가 주물러서 거시기해서 인제 얘기를 하는디 산이를 올라가서 솔가지 크막한 솔가지를 참 한 짐을 묶어서 지개를 쫓아가지구서 거덕쟁이서 이렇게 지고 내려올려고 이렇게 일어설려고 보니 뭐가 뒤에서 꼭 눌른단 말여. 아 그래서 내가 뭘 걸렸나 하고 뒤를 쳐다보니까는 뒤를 이렇게 쳐다보니까는 아 호랑이가 뒷발을 이렇게 섰고, 하나는 이렇게 하고서무니 일어설라그면 이렇게 눌는 기여. 그렇하면 주저 앉고 우지 않겠거든? 하하 이거 죽었구나. ‘내가 도망간들 몇 발짝 못갈끼고, 꼼짝없이 죽는구나!’ 아 그래서 인제 자기도 피가 요놈을 그 그 아래까장 요놈을 내 일어서는 척하다 가만히 일어서는 척하다 또 누르는 놈을 지꼐 벌떡 제졌단 말여. 아 그러이께 지가 암만 나와도 눌르다가 이렇게 제치이께 이놈을 안고 자빠졌단 말여. 안고 암만 근력이 쉰 호랑이라도 아 그 솔가지짐 그 한 백근도 넘는 놈 배위에다 올려 놓고서 이렇게 지판 허우적거리지 힘이 없어. 그러니까 지게 나뭇짐 뭐 호랑이 꼬랭이 붙잡고서 막 끌고 내려오는 거. 그러이께 거기 어더거 등걸 돌팍 뭐해서 이놈이 잔등이가 절단났지 뭐여. 그래서 이놈이 죽었어. 죽긴 죽었으나 사람이 사람이 기절했어. 정신놓고 자빠졌단 말이며. 그래서 인제 동네 사람들이 가서 구하고 호랑인 가서 참 가 꺼내 보이께 호랑이도 잔등가 다 절단났어, 죽었어. 어 그 래설라무니 호랑이를 그렇게 잡았다야.(조사자:네. 또 해주세요.)

어떤 노인이 술을 얼근히 먹구 장에 갔다오다가 산고개를 넘는디 하두 인제 술이 취해 가지구선 더 못 가졌어. 그래 좀 쉬어 갈라고 드러누었다가 아 잠이 바짝 들었네. 얼마를 잤는지 어떻게 얼굴이 축축하고 자구 섬뚝섬뚝해서 가만히 정신차려 보니까 아 호랑이란 놈이 꼬리다가 물을 그 아래 가서 물을 축여 가지구설라무니 뛰어가지구선 얼굴에다 이렇게 꼬랭이를 끼었고선 갠나 이렇게 보구선 가만히 있으니께 그 입이다가 그 술내가 고약하게 나거든? 그러이께 입이다가 냄새를 이렇게 맡더니◆◆◆◆◆카!◆◆◆◆◆이러거 그 이러

구설나무니 또 가. 또 갔다와선 또 물을 끼얹고서는 또 갖다◆◆◆◆◆카!◆◆◆◆◆이 지랄 해여.◆◆◆◆◆하하 요놈한테 내가 도망간들 뭣 발작 못 가겠구 이거 큰일났구나◆◆◆◆◆(발음불명)이거 담뱃대 백에 없어. 담뱃대 하나. 그 이 담뱃대로 때려 갖구서는 뭐 호랭이가 죽을 리 만무하구, 피가 나. 요놈◆◆◆◆◆카!◆◆◆◆◆할 적에 내 아가리에다 찌를 거다 하구선 가만히◆◆◆◆◆카!◆◆◆◆◆요렇게 준비하고 있으이께 아니라 와서 또 카는데◆◆◆◆◆카!◆◆◆◆◆갈라면 사람이나 짐승이나 눈을 감아야 해여, 좀 그럴꺼 아녀? 아 눈을 감고 아가리에다 카하고 아가리 별리는 늑 그저 목구멍에다 담뱃대를 갖다 폭 찢렸어. 아 그러이께 이놈이 죽겠대. 이놈이 까맣게 튀더니만 어디 가고 없어졌어. 이놈이 어떻게 됐나 알 수 없지 뭐. 그 인저 그 뒤로는 안 나타나. 그래서 왔어. 살살 와서 집이 가서 인저 잠을 자고 그 이튿날 가만히 들으니께 아 잉 동네 사람들이 아무 호랭이 호랭이가 담뱃피고 앉았다구 야단났네. 그래서 에이 너를 그 호랑이가 담배피는 게 아니구 죽었을 게다. 가봐라. 야난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구서 가보니 담뱃대를 이놈이 이 까장(목쪽으로 손을 올리며) 쑥 드갔으니 말이여. 빼도 못하고 그 죽을 노릇 아녀여 그거 암만 멍흔들, 할 수 없어. 그래서 이 또 호랭이가 잡 호랭일 잡았어.

마. 도고면 마을 5 (오암리)

1) 조사일정

1995. 6. 23., 전정옥 작성

오전에 향산리 조사를 마치고 도산리를 거쳐 오암리를 찾았다. 여러 사람의 추천으로 알게 된 김영훈씨를 찾아 집으로 갔다. 조합장을 지낸 탓인지 위엄을 차리려 했고 성품은 인자한 것 같았다. <김익생 효자에 대한 유래>, <송상침 이야기>를 듣고 구연을 계속하려는데 요즈음이 선거철이라 유세차 들른 사람들로 인해 조사를 계속할 수 없었다. 돌아오던 길에 송씨의 묘에 들렀는데 도굴군들의 이성을 잃은 행동으로 무덤에는 새파란 풀 대신 삽으로 파헤쳐진 자국이 선명했다. 돌아오는 발걸음이 무거웠다.

2) 마을개관

【도고면 마을 5】

336-910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오암리

1995. 6. 23., 김선희 조사.

‘우리실’이라는 옛 이름을 갖고 있는 오암리는 다른 마을에 비해 안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지 자그맣고 조용했다. 다른 마을과 마찬가지로 수박, 쪽파 등의 농사를 짓고 있으며, 도산리와 같이 5% 정도 여자 인구가 많다고 한다. 공공시설은 없으며 교육시설도 없어 화천리에 있는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 대부분 마을 사람들이 불교를 믿고 있으며, 기독교인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생활정도는 다른 마을에 비해 다소 낮은 편이며 위치상 안쪽이라서 그런지 폐쇄적인 느낌마저 들었다.

3) 구연자

【오암리 구연자 1】

도고면 오암리 347, 김영훈(金永勳), 남, 73.

1996. 12. 17. 신명화 조사.

화천리 노인회관에서 만났다. 현재까지 16대째 오암리에 살고 있다. 보통학교 6년을 다니고 이북에서 몇 년간 있다가 다시 이곳으로 와서 공직에 2·30년 종사했다고 한다. 현재 농사를 짓고 있으며 유도회 신창지부장을 맡고 있는데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다. 외모상의 특징은 눈이 작고 눈가에는 큰 주름살이 잡혀 있었으나 인상은 매우 좋았다.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한 편이었으며 지식인이라는 인상을 풍겼다.

구연시에는 두 손으로 큰 손짓을 하면서 되도록 자세하게 얘기해 주려고 노력하였다. <효자 김익생 이야기>와 <송상침 이야기>를 구연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오암리 설화 1】

오암리 김영훈씨 집, 1995. 6. 23., 전정옥, 최수정, 김선희, 이경진 조사.

김영훈(남, 72)

김익생 효자에 대한 유래, 송상침 이야기

오암 앞

이 점은 모릅니다. 하하하. (조사자:예.) 서원 말씀하셨는데 (조사자:네.) 서원은 설립연대는 확실히 몰르고 에 대원군 서원 저 철폐할 적에 같이 없어졌어. (조사자:아 네, 그때 대원군 아주 몇 백개 정도의 서원을 철폐했다고 들었어요.) 그렇지. 그걸 다 기억은 못해. 서적엔 나오는데 구건 뭐 다 아는 거기 땀에. 아 지금 유물은 아무것도 없고 주춧돌이 남아 있었는데 (조사자:아~.) 그것이 지금 신앙 신앙면 신앙리로 가서 있어. (조사자:신앙면 신앙리? 네.) 거기 종씨들 자손들이 거기다 복원, 서원 복원한다고 갖다놓고 있어. 아직 복원은 안 댔을걸. (조사자:아, 그렇구나! 할아버지 그런데 여기요 김익생이라는 효자요~.) 이것은 이 자 그냥 적어요.(조사자:예.) 이걸 복사해줬으면 좋은데 복사를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자: 할아버지 말씀, 얘기를 듣는 거예요.) 서기 1388년 (조사자:네.) 이 송도 지금의 개성에서 태어났어. 고려가 망하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이 동산으로 오셨습니다. 이것까지 다 적었어요? (조사자:예. 그냥 말씀하시면 돼요. 녹음이 되니까요. 안 적어도 되니까 할아버지 얘기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면 돼요. 손자들한테 옛날 얘기 해주듯이. 잠깐 전화가 왔네요.) 이건 위법이야. 이거 저 다시 해요. (다시요. 네.) 돌 익(翼)자 익생. 돌익자 날 생(生). 자는 정보. 호는 성재. 서인군의 맏아들. 서기 1388년 미진년³⁴⁾에 지금의 개성 송도에서 태어났습니다. 고려가 망하면서 아버지를 따라서 신창 누랭이(조사자:누랭이 알아요, 들었어요.) 거기루다 오셨어요. 7살 때에 겨울에 어머니께서 병환이 나서서 식음을 전폐하시고 배를 잡숫기를 원

하시니 이 그 동산 넘어 절이 있어요. 거기 가면 배가 있으리라는 말을 듣고 해가 낡아 낡아 넘어 갈때 배를 구하러 가시는데 홀연 홀연이라는 거승 갑자기, 범이 나타나서 등에 업고 절까지 가셨다. (조사자:아아!) 그래 거기서 배 세 개를 구다가 어머니를 드렸더니 어머니가 그걸 잡수시고서 그 병환이 크게 나셨던 거야. 그래서 겨울에 그때가 인제 여름이 아니고 겨울인데 겨울에 배가 있을 수가 없지. 지금 같으면 많이 있지만. (조사자:네, 맞아요.) 그래서 배를 겨울에 배가 있어서 구해다 드린 것은 하늘이 감동해서 주신 것이라 이렇게 칭찬이 자자한 것이 당시 조정애 소문이 들어갔어요. 그래 태조왕 5년, 태조왕 아시죠? 태조왕 5년 공이 18살 때에 효자 등극을 받았습시다. 그것이 지금 저기 세워져 있는 효자비입니다. 몇 번 이렇게 보수하고 했지만은 예 정 정묘를 내린 것은 태조왕 때. (기록을 보면서 읽음) 그리고 인제 그 손자분께서는 문묘를 경비하는 용제삽니다. 서기 1427년 신축년 8월에 남포진 병마절제사. 남포진이란 충청남도 저 보령에 남포진이라는 데가 있어. 거기 병마절제사 또 거쳐서 1427년 7월에 좌근동지총제. 1428년 무신년 4월 황태자 작공진화사. 또 동년 6월 9일까지 동년 10월 충청도병마절제사. 1436년 병진년 한성리에. 1439년 그해 경상좌보수군초지사. 1440년 경신년 10월 동지중추원사. 11월 17일 가정내부경비군 겸 원문병마절제사로 1442년 임술년에 비원을 세워서 가무사로써 성은해 성은이란 나라에 불려가서 들어갔다는 것이지. (조사자:네.) 1442년 10월 11월 2일 자헌대군으로 승진. 1443년 그해 중추원 도사로 상경해서 예조판서이납시다. 이것은 왕저실록을 놓고서 배긴 것입니다. 지금 현재 왕조실록 있죠? (조사자:네, 그 앞에 어머니 배 구해드린 건 왕조실록에 나온 거예요?) 그건 아니구. (조사자:전설같은 거구나.) 그럼 저기 지금 비석이 남아 있는 것은 당시에 비석 세운 것은 허리가 동강 이렇게 나고서는 저 물로 떠내려 가서 한줌한줌 쫓어다가 서원에 다 묻고 정조 때 세운 비석이 있어요. 고것이 너무 적다구래서 1980년 다시 고 비말고 고기다 또 세워놨어요. 그래서 지금 가서 보시면 알지만 이렇게 저 정문 안에 비석이 2개 있어요. 하난 정조 때 세운 거고 큰 거는 1980년에, 이거요. 이건데 이거는 현판. (조사자:현판이란 게 뭐예요? 저는 잘 모르거든요.) 현판이라는 것은 이 비석에다가 쪽하니 사적을 그분에 대한 효자사적을 쓴 거를 새겨서 걸어놓는 거. (조사자:그럼 지금 여기 있는 건 도산리에 있는 거예요?) 응 도산리. 지금 거기 걸려있지 가보면. (조사자:지금 가다가 볼 꺼예요.) 그 비석이 있고 저 비각이 있고 요 앞에 비석이 또 하나 있어요. 요것은 이분과는 상관이 없고 이분의 후손이 김정국 김정국씨가 (조사자:김정국 도봉선생님이요?) 고것은 고고는 여기다가 김씨 우리 김씨들 비석을 모두 여기다 모으려고 1차적으로 거기다 세운 거야. (조사자:아! 그런데 벼슬은 도봉선생님이 훨씬 많이 했다고 그러더라구요, 김익생보다.) 아니, 김익생이 더 많이 했지. (조사자:저번에 저희가 그 후손을 직계후손을 만났거든요. 김자 예자 직자.) 예직이? 예직이 잘 몰라요. (조사자:예, 하하.) 벼슬을 많이 한 것은 익자 생자가 제일 많이 했어. 제일 높은 것을 했고. 저 도봉선생은 대과급제하고서 대과급제하고서 밑에 벼슬 서부터 계단 밟아올라가서 병조참의, 병조참의는 지금으로 말하면 국장급. (조사자:아!) 통경대부 그니까 진주목사, 진주목사는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인데 온양시나 천안시보다 조금 크고 지금 직할시나 광역시보다는 적고, 요런 시가 진주에 있었어. 그래서 진주시의 영사를 하셨어. 그것이 최고 벼슬이고 저기 김익생은 예조판서까지 했으니까 썩하니 위지, (조사자:이 책은 뭐예요?) 이건 종약보라고 종약보라고 요것은 (조사자:종약보.) 종약이라는 것은 중문에서 약속한 거다, 규약이다 이런 얘기다. 보라고 하는 것은 모으는 거 종약을 모은 거다. 필요하면 한권 드릴까요? (조사자:한 권 있어요? 고맙습니다, 할아버지.) 또 알고 싶은 것이 있어요? (조사자:김익생 선생님에 대한 일화 같은 거 있죠? 할아버지만 알고 계신 일화, 책

에 안 나오는 거라도) 김익생 선생에 대한 거, 다른 거 하나 얘기 할까? (조사자:예.)

여기 가면 묘의가 하나있어. (조사자:묘의?) 묘. 상석도 있고 비석도 있고, 누구냐 하면은 예 세종대왕의 상침 상침 (조사자:상침, 그게 뭐예요?) 상침이라는 것은 예 한자 글자 그대로 할거 같으면, 데리고 갔다는 거야. 오히려 상(尙) 자하고 잘 침(寢) 자, 상침. 송씨의 소생 정현옹주라고 있는데 (조사자:정현옹주?) 정현옹주. 그분이 윤사로한테로 하가를 했어. 시집을 갔어. (조사자:윤사로라는 남자한테 시집을 갔다고 예.) 그래 그 윤씨들이 지금 여기서 살고 저 묘도 있고 그런데 그 송씨 묘가 여기 있어 (조사자:그런데, 왜 세종대왕이 데리고 자요? 해해.) 어 그것은 일종의 후궁이지. 저 왕비에는 여러가지가 있잖아요? 그중에 상침이라고하는 건 아래라고 봐야지. (조사자:그런데 윤사로한테로 시집을 갔다면서요?) 아니, 그 딸, 어 그 딸이 (조사자:딸이~.) 윤사로한테로 하가를 했어. (조사자:아, 그러니까 옹주의 어머니.) 그 옹주의 어머니. 그 요기에 있는데. 비석도 있고 상석도 있고 해서 해방 전까지만 해도 그 윤씨들이 전부 손을 보고했는데 지금은 퇴락해서 돌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그걸 그 밑에 묘 쓴 사람들이 와서 가을이면 봐 주고 별초도 하고 그랬는데, 그것을 몇 번 이 교육청에도 얘기하고 군청에도 얘기하고 했어도 무관심해요. 그것이 도굴당한 흔적도 있어요. (조사자:어머, 웬 일이야.) 그 송씨가 이 동리서 났어요. 그래서 이 동리로 온 거야. 그 옛날 얘기 그 얘기를 하면 길기 때문에 그 얘기는 뭐. (조사자:아니예요. 길어도 해주세요. 저희는 그것 때문에 온거예요.) 그 얘기 해 줄까? (조사자:예.) 저기 가면은 지금도 그 집터가 있어요. 거기 딴 사람이 살고 있는데, 거기 송씨가 살고 있었는데 아주 가난하게 살아요. 그 인제 시어머니하고 며느리 둘이서 가을쯤 돼서 인제 목화를 따러 저기 산밑에 밭이 있는데 목화를 따러 갔는데 아침부터 거기 못 보던 어떤 중 하나가 드러 누워있거든. 자기네들이 점심 때가 기울어서 배가 고파서 집으로 갈려고 하는데 그때까지 드러누웠어. 그래 시어머니가 가서는 “스님 스님, 어찌 이렇게 오래 계십니까?” 하니까 아주 정신을 못차려. 시어머니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스님이 배가 고파서 그러는 거 같애. 그래서 며느리한테 가서 “애야, 얼른 집에 가서 먹을 것을 좀 가져와라. 배가 고파서 그런가보다.” 그래서 며느리가 집에 와서 보니까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 아무것도, 해 놓은 게. 근데 언뜻 생각하니까 자기가 애들이 하나 있는데 이 젓이 툭툭 붙었거든, 그래서 한통 보자기에다가 짚어. 짜서 그놈을 갖다 언제 드렸어 스님한테. 스님이 그걸 먹고서는 아주 정신을 차려서 “아! 이게 뭐가 이렇게 좋은 거냐?”고. “이렇게 정신이 난다.”고 그런단 말이야. 그러니 인제 그 시어머니가 죄송합니다. 갖다 드릴 것이 없어서 며느리의 젓을 짜왔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그럼, 이런 고마울 때가 어디 있냐고 내가 이 은공을 갚아야 할텐데 뭘로 갚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 자리에서 가르쳐줘. 저기다 묘를 쓸꺼 같으면 왕비를 날 것이다 이런 얘기야. (조사자:그래가지고 정현옹주가 태어났군요.) 그래서 거기다가 선대 산소를 썼는데 그래서 옹주가, 아니 송씨 상침이 났다. (조사자:나중에 또 옹주가 태어났다. 네.)

바. 도고면 마을 6 (향산리)

1) 조사일정

1996. 12. 17., 김소영 기록

보완조사 이틀째 오전 11시경 향산리에 도착하여 이장 이복규씨를 찾아갔으나 출타 중이어서 만나지 못하고, 이장의 자제의 소개로 정낙용씨 집을 찾아갔다. 정낙용씨 집에서 잠시 얘기하다가 조사자와 함께 향산리 노인회관으로 갔다. 정낙용씨가 연락을 취하여 노인 몇 사람이 모였다. 그 중 정민모씨는 자기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겪었다고 하는 <귀신 이야기>와 <병풍바위·검바위 이야기>를 구연하였으나 자료적 가치는 없는 이야기들이었다. 김동기씨는 향산리의 자연부락(피미, 나뭇골, 용호원)의 유래에 관해 구연하였다. 그리고 옆에서 듣고 있던 박완석씨가 <은고개 이야기>, <효부 며느리와 호랑이 이야기>를 구연하였다. 조성갑씨는 여러 가지 문헌자료를 대면서 이야기를하여 조사취지와 너무 어긋나서 채록할 만한 이야기를 구연하지는 못했다. 더 이상 별다른 자료가 나오기 어려울 것 같아 다음 조사지인 신통리로 향했다.

2) 마을개관

【도고면 마을 6】

336-910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향산리.

1995. 6. 22. 김선희 조사.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어 교통이 가장 편리한 향산리는 배나무골, 바깥피미, 안피미, 용호원, 거문배(검은 바위), 팽이, 벌팽이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었다 한다. 대부분 농업과 축산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조사 당시에는 담배 수확이 한창이었다. 여름철이 농촌에서는 바쁜 계절이라 마을 안에서는 많은 사람을 만나 볼 수는 없었으며, 마을 전체적으로는 대로변이라서 항상 소음이 많지만, 마을 분위기는 나름대로 평화로웠고 무엇보다도 마을 전체가 너무나도 깨끗했다. 다른 마을에 비해 전반적으로 생활수준은 조금 높은 듯했고 파출소, 보건소, 우체국 등의 공공기관도 있었으나 학교 시설이 없어 4km를 걸어서 시전리 쪽으로 학교를 다닌다고 한다. 마을 전체의 3분의 1 이상이 기독교인이고, 또 3분의 1 정도는 불교신자이며, 나머지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한다. 그리고 설날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윷놀이를 크게 벌이는 민속행사가 있다고 한다.

1996. 12. 17., 박성준 조사.

자연부락 명칭은 나무골이다. 가구수는 90가구, 인구는 350여 명으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4:6 정도라고 한다. 연령 분포를 보면 대부분 주민들이 40~50대이며 생활수준은 보통 농촌에 비해 中下이며, 교육시설은 없으나 교회·마을회관·독서실 등은 갖추어져 있다. 종교 상황은 기독교가 30%, 불교가 30%가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는 무교이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농업에 종사하고 네댓 가구가 축산업에 종사한다. 민속행사로는 정월초에 하는 윷놀이가 있다.

3) 구연자 조사

【향산리 구연자 1】

도고면 향산리 273번지, 박완석(朴完錫), 남, 71.

1995. 6. 22. 이경진 조사.

24년째 향산리에 거주하고 있으며 어렸을 때 서당에서 공부했다고 한다. 현재 공장에 다니는 부인과 손자를 데리고 함께 살고 있으며 논농사 11마지기를 짓고 있다고 한다. 나이에 비해 매우 정정한 편이며 얼굴이 검고 주름이 깊게 젖어 있고 몸집이 작다. 머리는 염색을 해서 검었고 작업복 차리메 소탈한 모습이었다. 구연할 때는 제스처를 많이 하며 말끝을 올리는 버릇이 있다.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열중하였다. 존댓말을 사용하며 이야기가 끝났을 때는 조사자들의 호응을 요구하기도 했다.

여자는 한 남자를 섬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 이야기 중간중간에 유교적 가치관을 자주 내비쳤다. 이야기 도중 조사자가 질문하면 자상하게 설명을 곁들여 주기도 했다. 영어와 한자성어를 틈틈이 사용하여 조사자들에게 웃음을 주었다. 어린 시절 할아버지에게 들었다는 ‘호랑이도 무서워하는 조강지처’ 이야기를 해 주었고, 일제시대에 직접 보고 겪은 친일파에 대한 울분을 터뜨리기도 했으나 자료가치는 없는 것이었다.

【향산리 구연자 2】

도고면 향산리 273번지, 조성갑(曹成甲), 남, 70.

1995. 6. 22, 23. 이경진 조사.

56년 전 이 마을로 이사왔으며 우체국장을 지내다 84년에 정년 퇴직하였다. 안경을 끼고 머리가 희며 옷맵시가 깔끔하다. 키가 작고 귀가 크다. 비스듬히 앉아 이야기하는 버릇이 있으며 조사자 중 한 명과 눈을 마주치며 구연했다. 조사자들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향산리에 대해 사전조사까지 해오는 정성을 보였다. 사람의 도리에 대해 장황하게 얘기하고 자기 집 앞에 있는 묘를 관리해야 할 후손들이 방치해 두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자기가 직접 관리를 해주고 있다고 했다. 조사자들이 자기를 대하는 태도도 별로 마음이 들지 않는다고 했다. 대체적으로 이야기 자체도 좀 따분하고 지루했으며 분위기도 좀 경직되어 있었다.

또 역사적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으려 했다. 사고방식은 신석인네 비해 권위주의적인 면도 있었다. <용호원의 유래>, <효자리 효자 최의대>, <느랭이 지명 유래>, <자라바위>, <도고온천 유래> 등을 구연해 주었다.

4) 설화 자료

【향산리 설화 1】

도고면 향산리 노인회관, 1995. 6. 22., 박주영, 최윤실, 김세연 조사.

박완석(남, 71)

호랑이도 무서워 하는 조강지처

*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구연을 유도했으나 아는 것이 없다고 하면서 어색해 하다가 신변 이야기를 시작으로 녹음 준비 끝났냐고 물으면서 옛날 얘기를 해 주겠다고 하면서 구연을 시작했다.

저기 옛날얘기 하께? 이 가정 인제 여자가 출가해 가며는 그 여자가 가정 살림살이를, 한 남편 섬기고 남편은 한 남편만 섬기지 두 임금을 섬기지 않는다.(조사자:그렇지요. 예.) 옛날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잘 들으세요. 예 충신은 착한, 나라를 섬기는 사람이 충신이어.(조사자: 예.) 그 사람이 나쁜면 나쁜 일 일이 생겼다? 또 전장을 쳐들어갔고,(발음 불명) 두 임금을 섬겼다.(조사자:예.) 충신이며는 불사이군이라.(조사자:무슨 말인지 알고 있어요.) 불사이군이라 알아 들어요?(조사자: 그럼요.) 나쁜 사람이야. 두 임금을 섬기는 자는 나쁜 사람이다.(조사자:그렇지요.)(녹음 중단) 여자(조사자:예) 결혼하는 여자는 착한 사람을 한 남편만 섬기는 거여. 한 남편만 섬기는 거지? 무슨 두 남편을 섬길 수 없어.(조사자:예.) 열녀불객이군³⁵⁾이라.(조사자:응~.) 나쁜 여자는 두 인 두 남편을 섬기고 한 남편 섬기고 아들 딸 낳아가지구서 크게 성공시키고 한 어 여성이 되어가는 한 남편만 섬기는 거. 두 남편 섬기는 게 아니다. 그 맞아요? 지금 시대도³⁶⁾ 그렇습니까? 나쁜 여자들이 한 남편 두 남편 섬기는 거? 또 지금도 이렇게 방에서 떠들고 땡기잖아요?(조사자:예.) 이 금전, 돈 때문에 돈 때문에. (발음불명) 나쁜 사람들이지요? (조사자:예.) 그리고 또 한 구절이 있어요. 옛날 어떤 여성이 그 아주 깨끗한 여성이죠., 한 남편 섬기고 머리 이렇게 낭자를 꽂고(조사자:어~.) 자기 사랑에서 밧을 땀다 이거여.(조사자:어. 낭자가. 비녀를 말하시는 거예요?) 아 예 그렇지(조사자:어~.) 옛날에는 시집갔다 하며는 (조사자:어~.) 쿵 한 포기라도 가꿀라고 이렇게 밧을 때는데(조사자:예.) 아 느닷없이 식 하더니(녹음중단) 배가 고프니까 잡아 먹겠다는 거지.(조사자:어~.) 그런데 여자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기서 이빨로다가 물려선 게 아퍼서 죽었는데, “좋다. 근데 내 한가지 철천지한이 맺히는 일이 있다.” 여자가. 호랭인 물고 들고 올라가고(조사자:어~.) 그에 호랑이가 꼬리를 이렇게 흔들더라구. 그래서 정장을 하구 섰다는 거여. 그에 인제 말은 서로가 짐승이니까 못하지만. 인제 여자 말을 듣는기여 꼬리를 치며. 네 밧되는 것은 이 내가 네 밧되는 시가 왔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땀지만 지금 내 한이 생기는 게 있다. 이 호랑이가 이렇게 놓구서 가만히 이 지랄 흔들고 듣거든.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말은 못해도. 이게 무엇 때문에 그러냐 인제 그 소리여, 꼬리칠 때는. (조사자:응~.) 내 방이니까 살고 죽고. 얘기들 둘 낳는데 얘기들도 굶어죽고. 지금도 나 아니면 지금도 굶어 죽게 됐다. 일본 놈들이 다 뺏어가고 생각해 보니까 얘가 맹랑한 일이다 이거지. 아무리 짐승이라도 (조사자:응.) 그자리서 이빨로다간 그 여자를 뵈다 이거여 (조사자:응~.) 가지고 못 올라가고 못 잡아먹고 탁 났다 이거여. 거기서 꼬리를 이렇게 이렇게 세 번 치더라. 여자가 인제 악을 쓰고 인제 별떡 일어나갖고 호랑이를 쳐다보니까 꼬리를 이렇게 세 번을 치더라 이거야. 치더니 제대로 도망갔 버렸다 이거애. 그래서 그 뜻이 무엇이냐 여자가 시집가서 얘기 딸 낳고 이렇게 사는 게 조강지처. 첫 번 스타트로 만난 여자들 하는 소리여. 그러닌 그런 사람들은 호랭이도 못 물어간다 이거여.(조사자:응~.) 뜻이 그거여(조사자:응~.) 호랭이도 무서워서 못 물어간다. 조강지처(발음불명) 그렇기 무서운 짐승도 그 말이 사실 옳으니까(조사자:응~.) (발음 불명) 놓구 갔다 이거여 그래서 그 뜻이 진리가 그럼 무슨 소리냐고 인제 학생들이 물을 거 아녀?(조사자:예.) 그 사실 그 뜻은 무슨 뜻이냐? 이

(옆 청중이 개입하여 조사자가 관심을 보이자) 아아이 귀떡었어. 못 알아들어. 가만 내버려 뒤. 이 범게 범도 이 한일 가정 한 남편을 섬기고 사는 여자를 그렇게 무서웁게 한다 이거야. 뜻이.(조사자:응~.) 지금 이 세상이 와서 늘 장사하는 여자들 있잖아요?(조사자:예.) 또 다방 같은 데 댕기는 아가씨들 있잖아요?(조사자:예.) 그 사람들은 뭐 그 어떻게서 이 세상에 여자 몸이 돼 가지구서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고 땅을 쳐다보고 어떻게서 인간다우냐. 절대로 그 사람들 인간다웁지 안 해요. 그 사람들은 호랭이가 물어가면 참말로 먹어요. 인간다웁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시집가서 시어머니 모시고 시아버지 모시고 이렇게 하 남편을 섬기는 여자는 호랭이도 못 건드린다구. 사람은 (발음 불명) 범 범도 못 건드려. 그 뜻입니다.

4) 설화 자료

【향산리 설화 2】

도고면 향산리 조성갑씨 집, 1995, 6, 23., 전정옥, 김선희, 최수정, 이경진 조사.

조성갑(남, 70)

용호원의 유래, 효자리 효자 최의대, 느랭이 지명 유래, 자라바위, 도고온천 유래.

향산2, 앞

여기는 왜 용호원이라구 했느냐며는 시대가 확실히 우리들도 몰라요. 옛날이라고 그렇게 나와있지요. 옛날에 중국서 사신이 나오며는, 중국에서 사신이 나오며는 우리나라에서 영접사가 나가는데 그 사신에 대한 영접을 하러 나가는데 어 여기에도 그 영접하는 그 뭐라고 합니까? 그 영접사라고는 돼 있으면서도 그 건물이죠. 그러니까 인저 (조사자:그러면 영빈관이네요.) 그렇게 봐야죠. 지금 말하면 영사나 대사 뭐 이런 사람들. 영빈관이죠. 그 명칭을 갔다가 ‘용호원’이러고 했답니다, 집 이름을. 집 이름을 용호원이러고 해 가지고서 그 저 나올래면은 여기 와서 시간을 양국에서 시간을 조정해서 가지고 나오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여기서 만나 가지고서 인자 서로 국사에 대해서 의논하고 그래서 그때 그 손님을 접대하는 그 집 이름이 용호원이라 해 가지고서 그때부터 지명을 갔다가 용호원으루 지시를 해서 오늘날 까지 불려오고…….

이조 말엽에 에 효자리에 최 최의대라는 어린이가 살고 있었더라요. 사는 동네가 마냥뜰이라는 겁니다,마냥뜰. 마냥뜰에서 인제 살았는데 늙은 어머니와 함께 인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인제 그 노모께서 병세만 저 악화가 됐지.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하루는 병석에 누운 어머니가 잉어를 먹고 싶다고 말이야. 죽어도 잉어를 좀 먹고 죽었으면 좋겠다구 이런 말씀을 하는 사이에 어린이 애 환자가 에 어떻게 허든시간에 어린이가 참 씩이 있고 효성스러운지라. 그래서 ‘어떻게 허든시간에 잉어를 구해서 어머니에게 좀 갖다 드려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먹고서 인저 백방으로, 그 당시 겨울이였었는데 하루는 살을 에이는 에이는 듯한 그런 추운날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어린애가 참 잉어를 구하기에 아주 전심전력을 하고 뽕뽕 열어 볏은 냇물에 며칠 동안 찾아다니면서 연못을 깨고 뭐 이렇게 해 가지고서 잉어를 잡으려고 해도 잡히질 않고 구할 길이 없었던 말이야. 그 나이

어린 그 의대가 그래도 실망하지 않구서 낮에는 연못을 찾아가 잉어를 잡을라고 허고 밤이면 뒤뜰에 나가서 하나님께다가 기도를 허고 잉어를 좀 구하게 해 달라고 그래 가지고 어머님 병환을 하루 빨리 완쾌하게 해 달라고 기도를 허고 하는데 그랬다는 얘기여. 어 그래서 인제 잉어있는 곳을 알려 달라고 빌어졌지요, 인저. 그런데 어느날 기도를 드리다가는 깜박 잠이 들었었드래요. 꿈속에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참 뭐라고 하느냐면 “의대야! 너의 효성이 하도 지극허고 너무나 지극허기 때문에 너의 어머님 병환은 곧 나으실 것이다.” 할아버지가 인제 꿈에 나타나 가지고서 너무 걱정하지 말라고, “네가 찾고 있는 잉어는 너의 집안 쪼그만 연못에 그 안에 있다.” 말이야. 그때니³⁷⁾ “그 잡아서 어머님께 봉양을 하면은 틀림없이 그 잉어 자시면은 어머님 병은 나실 것이다. 너무 근심허지 말고 너의 쪼그마한 연못안의 거기 잉어가 있으니 잡아서 봉양해라.” 그랬어. 그래가지고서 그 어린이가 의대, 의대라는 어린이가 개 이름이 의대여. 돌아와 가지고 하두 기쁘구 그래 가지고서 그 연못은 틀림없는 마당가에 있는 연못이니까는 물을 다 말려가지고서 그 잉어를 잡아서 어머님을 드리니 바루 완쾌해 가지구 어머님 잘 봉양하고 잘 살았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동네가 효자리.

* 도산리에 서원이 있느냐는 물음에 지금은 없고 옛날에는 있을 법하다는 얘기를 하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옛날에 있을 법하다는 얘긴데 여긴 느낌이고 내가 근거를 알고서 얘기하는 것은 아니니 참고 정도로 하세요. 그 도산리에 느랭이라는 동네가 있어(조사자:느랭이?)느랭이. 느랭이(조사자:느랭이.)현재 도산리(조사자:옛날 자연부락 이름이 느랭이였어요?)자연부락 이름이 느랭인데 거기에 느랭이라는 동네 그 유래는 삼한시대에 삼한시대에 천황, 천황(조사자:천황?) 임금님이죠. 천황이 도읍한 곳이라 그 당시에 현재 느랭이가 아니고 그 당시에는 ‘늘왕리’(조사자:늘왕리?) 늘왕리라고 불렀다는 거여. 그에 현재에 와서는 그것이 인제 오랜 세월이 흐르니깐 늘왕리라 안 그러고 현재에는 느랭이라 구러지. 요새 한 걸로 봐서 그 당시에 임금이 도읍한 데로 도읍했다는 그러헌 그 전설로 봐서는 서원 정도는 있을 법한 일이 아니냐.?

현재 행정구역으로 와산리에 있는데, 자라실리라는 동네가 있시요.(조사자:자라실?) 보통 자라실리라고 부르는데 거그 바우가 있느디를 거그에 큰 바우가 에 있는데 뭐 거 바우를 보고 자라바우라고 허는데 형태가 둥글고 자라모양으로 결국은 자라 비슷허게 이렇게 생겼기 땀에 자라바우라 허는데, 그 자라바우에 발톱이 발톱자욱이 하나 옛날부터 있는디, 옛날 장수가, 장수가 말을 타고 뛰어가다 가는 그 말을 앞굽이 그 바우에 (조사자:찍혔다고요?) 그래 가지고서 발자욱이 생겼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바우를 자라바우라고 허고 보통 그 이 자라바우 있는 디를 그 그 당시에는 저 그 그걸 따가지고 자라실, 자라실리라고 불려왔다. 이렇게.

향산 2 앞, 뒤

도고 저수지를 넘 넘 넘어서 흐르는 거기부터 거 뭐시기가 된 것이 도고온천이다. (조사자:

어~.) 도고온천, 도고온천인데, 옛날엔 그거 그 개천이 지금 모습이 아니었겠지. 인저 아니 참 자연형으로다 이렇게 아무렇게나 됐거지. 근데 논 가세에 췌 췌기배미, 췌기배미라구 인저 (조사자:췌기배?)췌기, 췌기배미라구 (조사자:췌기뺨?) 뺨, 배미.³⁸⁾ 근 무냐 하면 논, 큰논이 아니구,(조사자:췌그마한 논.) 일루 말하면 저 송충이모양 같이 질게 췌그마나 하게 생긴 단, 그 배미를 췌기자를 넣어 가지고 췌기배미라고 하는데 췌그마한 논이 하나 있었어요.(조사자:췌기배미, 논 이름이예요?) 응,논 이름이지.(조사자:아! 뺨이름이 아이라.)(조사자:배미. 논배미할 때 그 배미.)배미. 그런데 논 한 구석에 항상 조금씩 흐르는 웅달샘이 있었던 말이야. 그 췌기배미 논 한구석에 웅달샘이, 조금씩 흐르는 웅달샘이, 근디 그 고 부근에 췌그마한 에 존락이 하나 있었는데 거기에 못 살고 아주 참 뭐 그 당시야 뭐 아주 행편³⁹⁾ 없었지. 못사는 아주 그 당시 오두막집 하나에 아버지가 반 곱추,곱추 이렇게 곱추에 아버지가 눈도 잘 보이지 않고 그런 훌 훌아버지를 모시고 외롭게 사는 딸 하나가 있었던 말이야.(조사자:아, 예.) 딸 하나가 그래서 인제 그 딸이 그 아버지 뺨에 참 결혼도 못하고 아버지 병 구완허느라고 참 어렵게 살아나가는데(테이프 뒷면 바꿔 끼움.) 그래 가지고 아버지 병을 고치려고 거기에 전심전력을 하는데 고 그 건너가든 저 거기 가면 저 삼봉산이라고 (조사자:삼봉산?) 삼봉산. (조사자:삼봉?) 삼봉. 봉우리가 세 개라고 지금 거기 보고 시라리라구 구려. 원 법적이는 신석린데 거기 고도명이 신라리 (조사자:시라리?) 신라리. 옛날 신라 (조사자:아,신라. 신라리. 경주에 있는.) 신라리는 지금은 법정 리가 인제 신성리가 돼 있어요. 그 부근에 침의가 산다 소리를 듣고 (조사자:침 잘 놓는 사람.) 침 잘 놓는 의사지. 에 그 침의를 찾아다니기를 계속하는데 아버지를 모시고 인제 같이 침도 그 침의한테 맞고 계속 참 그 침의한테 아버지 모시고 갔는데 하루는 그 췌기배미에 웅달 웅달샘에 학 하나가 샘에 있어 가지구서 있는 것을 발견하는데 무심히 지나가다가 인제 이렇게 봤는데 오는 길에 봐두 또 학이 그 자리에 계속 앉았다 섰다 며칠을 그렇게 봐도 여전히 떠나질 않고 그랬단 말이야. 그러더니 처녀가 이상히 여겨서 참 생각하기를 학이라는 짐승은 보통 다른 새와도 달르고 어 참 이상한 보통 일이 아니다 해가지고 학에한테 접근 해가지고서 가 가 봐도 학이 날라가질 않고 그냥 있어서 학을 붙잡아서 자세히 보니깐 한쪽 다리가 다쳐가지구서 어 웅달샘 물이 김이 나는데 온수이까 김이 나지. 웅달샘에다가 그 다친 다리를 담구고서 그냥 계속 섰다 이런 얘기가야. 그것을 이 처녀가 확인을 했어요. (조사자:아~.) 그래서 집에 돌아왔는데 딸은 꼼꼼히 생각을 해 보구서 참 이상한 일이다. 에 그래서 누가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그그로 하두 아버지 병이 안 낫고 백방으로 오래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 뭐시기가 우리 아버님두 좀 데려다가는. 데려다가 웅달샘에 눈도 그 물로 좀 씻고 눈도 잘 안 보이니깐, 목욕도 시키고, 자기가 아버지 옷도 벗겨 가지고서 몸도 닦아주고 눈도 닦아 드리고 계속 그 뜨거운 물에다가 저기 하면서 며칠을 인저 수십 일을 계속 인저 그렇게 했다 말이야. 그러고 나니깐 아버지 눈이 밝아지고 이제 꾸부러졌던 허리가 펴지고 모든 그 아버지 그 참 편치 못했던 그 병환이 완쾌시켰다. 이런 뵈이가 전설이 전해지는데 일제시대 고목이라고 옛 고(古) 고자, 목목자, 나무 목(木)자, 고목(古木)이라는 사람이 인제 그 샘을 잘 다시 그 물 한 컵에 그때 돈 일 전씩 돈을 받고 팔았다 이거여. 이용해 가지고 일본사람이 그래가지구 (조사자:팔았구나. 아픈 사람 많으니까 그걸 이용해 가지고.) 그담 주옥 해오다가 왜정 말 가차이 돼 가지고서 인저 ‘다히라’라고 (조사자:다히라?) 다히라. 평 평(平)자, 평화라는 평자.(바닥에 글자를 써 보이면서) 요 자여. 다히라라는 일본 사람에게 그 업체를 넘겨줘 가지고 그래 가지구서 인저 비래 수질 검사를 잘 해 보고는 유향, 순전히 유향온천으로 참 이런 물이라는 것이 인저 발견이 돼 가지고 해방 후에 인저 다시 서울, 서울 돈있는 사

람이 와 가지고서 개발해서 오늘의 도고온천이 됐다 이 말이야.

1) 현몽하기를

2) 오백 나한(羅漢)

3) 뭐든지

4) 새재, 조령(鳥嶺).

5) 이치가

6) 넘겨

7) 건드리지 말고.

8) 얘기를

9) 기지(機智)로

10) 삼백(三白) : 세 가지 흰 것

11) 팔단자 : 붉은 팔 가루를 묻힌 단자.

12) 형아!

13) 원발.

14) 원새끼 - 죽은 사람을 뭇 때는 산 사람과는 반대로 오른새끼 대신 원새끼로 묶는다는 말.
한 말.

15) 이러면서

16) 바로

17) 머리털,머리카락

18) 망태기

19) '머리'의 잘못.

20) 빈 데가

21) 폭 고아진

22) 들어와서

23) 무나물

24) 힘대로

25) 스님

26) 세 개씩

27) 忠臣先知者

28) 까마귀

29) '까그매한테'를 잘못 얘기한 것임.

30) 날것이라도

31) 秘計

32) 救之暗梁死,救之五代孫.

33) 無罪한

34) 戊辰年의 잘못.

35) 열녀불경이부(烈女不更二夫)의 잘못.

36) 시대도

37) 그랬더니

38) 논배미 : 논이 한 구역.

39) 형편